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이강혁
편집인겸 주간 이정희
편집장 강인숙
외대신문사(☎962-7128, 961-4151)
외대학보(☎965-7048, 961-415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489
인쇄인 김영수

제572호 1992년 3월 3일 (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THE OE DAE HAGBO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제 다253호

등록금, 일곱자리가 넘었습니다

합리적 등록금은 3자 부담 원칙에 따라 책정돼야

교육재정확보를 중심으로 대 교육부 투쟁 전개

개강과 함께 92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대학당국이 18.18% 인상고지한데 따른 학생측의 반발로, 이를 고수하려는 대학당국과 학교 운영을 80%이상 학생등록금에 의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학생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등록금문제가 개강초 부터 학내 주요 쟁점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2월 26일(목) 전기신입생 등록금고지를 대학당국이 일방고지함으로서 대학당국과 학생측 대표(등록금 대책위원회 양캠퍼스 6 인 대표)간의 논의 진전이 없는 가운데 개강을 맞은 이번 등록금문제는 지난 12월 13일(금)부터 20일(금)까지 학생측의 전년도 학원민주화 합의사항 중 「예산결산위원회와 학생회의 예산편성소위는 등록금에 대한 협의를 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건의한다」(제8항)는 부분과 「학교는 총예산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점차 낮추어 가도록 노력한다」(제2항)는 합의 문구에 따라 대학당국이 이에 성실히 응하고 등록금조정위원회(이하 등조위)를 구성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학당국은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에 건의하라』라는 입장만을 고수하며 학생측과의 논의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

대학당국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 대해 용인캠퍼스 부총학생회장 김병철(사회·무역 4)군은 『등조위를 통해 계속해서 합리적인 등록금책정안을 내왔고, 대학당국의 이러움을 감안하여 등록예치제에 따른 협상을 해왔으나 올해의 경우는 모든 학원민주화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학생측을 배제, 학생들을 학원의 주체가 아닌 단순히 납세자로만 보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울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서상준(동양·인도이 4)군도 대학당국의 일방적인 등록금고지와 학생측과의 논의회피에 대해 『등록금 책정은 3자(학생·재단·국가)원칙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학교운영을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물가인상분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연증감분(2천1백3억원)은 당연히 재단과 국가가 공동부담하여 등록금 인상분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캠퍼스 총학생회 산하 등록금 대책위원회는 학생측의 등조위 구성 요구안이 대학당국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1월을 맞으면서 본격적인 강부교양 작업을 실시, 학원의 주체가 교수·학생·직원임을 명확히 하고 이들 3주체가 모인 등조위는 반드시 구성돼야 하며 또한 이들의 논의 속에서 등록금은 책정 되어야 한다는 기조속에 등조위를 등록금 책정위원회(가칭)로 개칭할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한 대학당국이 조속히 학생측과 논의의 자리를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기 위해 재학생 가정으로 대학당국의 부당성을 편지글로 선전해 내고 추가등록기간인 이번 달 20일(금)까지 「등록연기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결의했다.

대학당국에서 주장하는 등록금 18.18%인상안을 보면 학내 행정부처의 92년도 예산요구에 따라 납입금 인상율은 약40%를 상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예결산자문위원회는 △91년 소비자 물가 상승율 9.5%와 공공요금 인상, 선거와 무역적자 누증 △수년간 본교가 서울 소재 대학 중 최하위 수준의 등록금을 책정, 6여3천만원의 재정적자가 이체됐으며 △경인지역 사립대학장들이 16~20%로 92년 등록금 책정선을 확실히 할 것 이므로 본교도 책정선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19.15% 인상안(서울소재대학이 16%인상함을 가정)을 총장에게 건의했다.

총장은 이러한 건의에 따라 교무위원회를 소집, 16%인상율을 15%로 임의 하향조정하여 전년도 대학평균년액(1백76만3천1백15원)에 인상율 15%를 가산, 18.18%로 최종 결정하고 전체교수회의에서 인준을 받았다.

양캠퍼스 총학생회는 대학당국의 이러한 책정방안에 대해 △등록금으로 충당해야할 학교총예산액 중 자본적 경비(63억-재단분담을 19.3%)에서 건설가계정 항목(용인강의동 공사비-27억)과 장기차입금 상환액 15억, 지급이자액 4억(80년 용인캠퍼스 건립시 차관액과 이자)을 재단전입금으로 충당할 것 △학생측 학자요구사안에 소요되는 예산액 7억원 가량을 가산, 92년 등록금 인상분은 4.86%로 할것 △장기차입금의 상환완료가 95년도이므로 87년 학원민주화투쟁 당시 일단은 학생등록금으로 갚아나가되 이후에 재단의 세곡동 부지를 팔아서 학생등록금으로 갚은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전액을 학교운영비로 충당한다고 했으므로 즉각 이행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양측의 입장이 책정방법부터 상이한 가운데 지난 2월29일(토) 본교를 비롯한 서울지역 11개 사립대학 학생대표들은 서강대에서 「등록금투쟁 진행학교 연석회의」를 열고 3자원칙에 따른 등록금 책정을 통해 「교육재정확보투쟁」(이하 교재투)을 벌여 나가야 함을 재확인 했다.

교육재정확보를 중심으로 전개될 학생측의 개강 이후의 움직임은 각 학과로 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월24일(화)로 예정된 총선시기와 함께 등록금 문제는 단순한 학내문제에서 벗어나 대교육부(정부)투쟁으로 까지 확산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상으로 정해진 재단수익금의 80%를 대학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는 사항에 대해 동원재단이 4.6%만을 전입하고 있는 부분을 집중추궁하고 재단전입금 확충을 본격적으로 제기해 나갈 양상이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건설, 복지)과 교육여건(교과과정개편)등 제반 요구사항도 이번 등록금투쟁을 통해 기층학과로부터 논의되고 요구안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교재투 또한 단순한 경제적 해결방안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의 관건적 핵심인 정부차원의 교육재정확보와 지원확대 및 입법과정에서 교육비를 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총선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민주후보를 발탁하고 사학재단이 대학발전에 충실하도록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정부 수립으로 발현돼야 하겠다.

〈이영환기자〉

빈인자

국민을 위한 희생(?)

▲세상 돌아가는 모양새가 우습다.

국민을 상대로 한 인기작전에서 서로 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우습고, 그 진실되지 못한 외침들이 우습다못해 씁쓸하게 느껴진다. 돈을 가진 자들은 돈으로 환심을 사려하고 권력을 쥔자들은 안기부까지 동원해 이 인기작전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다. 「공명선거」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몇조원의 돈까지도 기꺼이 투입하겠다는 호언장담도 들려오고 있다.

요즘 들려오는 말대로라면, 그렇게만 정치를 한다면야 온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도 같다.

▲하지만 이게 웬 자가당착인가.

「강제철거 반대」「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평택주민들을 4시간 반동안이나 감금해 두었던 민자당의 소행을 보라. 그것도 국민을 위하는 성실한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하는 지구당 정기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말이다. 「돼지개밥」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은 그들이 위하겠다는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일이다. 이제 더 이상 권력과 돈으로 권좌를 얻고, 국민의 목을 옥죄어 그 고통을 빌어 명예를 얻고자 하는 정치인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다.

해방이후 그 어느때에 정치다운 정치가 있었던가.

해방이 된 뒤에도 친일파는 여전히 득세 했고, 4·19혁명으로 6월항쟁으로 민주를 외치며 이땅의 고귀한 젊은 넋들이 쓰러져 갔어도 여전히 자유당과 유신정권의 망령들은 활개를 쳤다.

국민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용서를 빌고 떠났던 전대통령은 연희궁(?)으로 돌아와 전직대통령의 위세를 갖춘 지 오래고, 국민들에게 심판받던 5공측근들은 또다시 권력을 담하고 있다.

국민들이 놓약을 마시고 죽어가고 오르는 물가에 살점마저 없이 울부짖어도 눈하나 깜짝않고, 가진 자들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설쳐대던 보통사람 역시 자신이 「민주화를 이루고, 통일의 기초를 닦고, 경제를 도약시킨 대통령」으로 평가받길 원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제는 껍달을 떼도 되지 않았는가.

국민들은 무엇을 그토록 바라고 바라왔던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하며 국민들이 바랐던 것은 돈으로 사는 민주주의도 책임감없는 달콤한 공약도 아니었다.

「내 몸이 얼조각이 나서 희생이 되더라도 국민의 소망이라면 이번 희생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으로 6.29선언을 결심했다」는 노대통령의 말에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지만, 이 말을 정치인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진정 「국민의 소망」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결코 희생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황효순〉

지 면 안 내

4면 : 남북합의서 채택과 한반도 군축의 전망
5면 : 분단시대의 정세변화와 인권운동의 방향
6면 : 92, 93년 정세와 총선대응
8면 : 개정된 학칙에 대한 외대인의 견해도
9면 : 국보법철폐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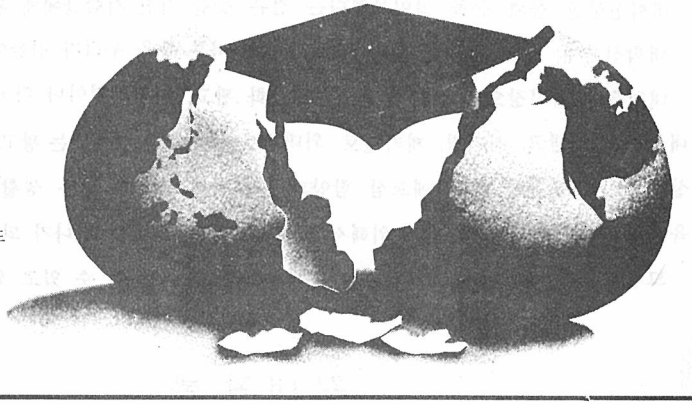
진리 · 평화 · 창조

미래의 주역을 양성하는 교육산실
—균형있는 학문발전과 교육의 선진화

세계를 호흡하는 知性과
미래지향적 국제인을 양성하는
외대는 21세기를 대비한
학문의 터전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높은 기상과 넓은 포부로써
학문의 본질을 탐구하는 外大人
-그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대는 복수전공과 부전공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문의 실용화에
앞장서 나아가며 제반 학문의 선진화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동구어계열과 자연과학 분야에도
학문의 영역을 확대하는 외대는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인재를 산출하는
학문의 場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역사를 분연히 떨치고
오늘도 외대는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노력으로 힘차게 힘차게
미래로 나아 갑니다.

韓国外国語大学校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사설

3주체의 참여속에 등록금 책정돼야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의 기본태도이며 생명이다. 더욱이 그것이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민주적으로 합의된 약속일 때는 약속의 불이행이 처벌로 이어짐은 당연한 전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교 대학당국과 학생간의 등록금 협상과정에서 보여지는 대학당국의 태도를 보면 대학당국은 약속불이행이 가져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있는 것같다.

대학의 3주체는 교수·학생·직원이며, 이들의 민주적인 참여 속에서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만 대학사회는 올곧게 발전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학생들은 수년간 이러한 학원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그 성과물로 89년 12월 등록금 결정을 위한 대학당국과 학생대표의 합의서(이하 합의서)에 「등록금은 교수·학생·직원이 참여하는 등록금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명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학당국의 태도는 어떠한가. 「학생들의 의사는 건의수준에 그쳐야 한다」 「학생들과 논의할 바가 아니다」라는 말말을 서슴지 않으면서, 사실상 학생들을 학원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있다.

어디 그것뿐인가.

작년도 합의사항에는 「학교총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등록금의존율을 낮추어 가도록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곧 국고보조금과 재단전입금의 확충을 의미한다. 즉 대학의 수입금을 크게 국고보조금, 재단전입금, 학생등록금, 기타수입으로 나누어 볼 때, 등록금의존율을 낮추려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의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교 재단전입금은 90년도부터 3년째 12억으로 동결되어 있고, 국고보조금또한 2억으로 묶인 상태에서 매년 등록금의 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등록금인상률이 18.18%로 확정된다면 본교 총예산의 87.1%를 학생등록금이 충당하게 된다. 이것은 산술적인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지금 전외대인은 대학당국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

이제 대학당국은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태도를 버리고 교수·학생·직원이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창구를 통해 등록금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선 재단전입금을 확충하고 나아가 국고보조금 확충을 위해 전외대인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합의사항 준수」라는 최소한의 양심은 기대하는 1만3천 외대학우들의 요구임을 또한 잊어선 안될 것이다.

언론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사회의 눈과 귀인 언론, 그 언론의 생명은 편집자율권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최근의 양태들을 보면 언론이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다. 제도언론이 장고주와 시주의 자본에 의한 압력과 정치권력의 틈바구니속에서 곡필을 자랑하고 있음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제는 그러한 제도언론의 실상이 대학언론에 마저 미치고 있다. 즉 대학당국의 압력에 의해 편집자율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학내외적으로 등무다 총선이다 분위기가 고양되고 있는 시기에 올바른 방향설을 제시하기 위해 더욱 분주하게 뛰어야 할 언론이 사슬에 발목을 묶이고 있는 것이다.

대학신문의 전문성 확보라는 미명으로 국장과 부장제를 폐지하고 신방과를 중심으로 각 대학원의 대학원생으로 재구성하고, 부주간직으로 전문 언론인을 영입하겠다면가 하는 모대학신문의 주간교수의 체제개편안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자 자질 향상을 이유로 학점을 적용하여 근로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기나 기자직을 박탈하는 여타의 사태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비록 전문성 확보와 기자 자질 향상이라는 미명을 덮어쓰고 있기는 하지만 내면에는 많은 속뜻이 숨어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언론이 사회의 흐름과 정세의 변화에 무관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때문에 이러한 대학언론탄압의 사례들도 작금의 정세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즉 「학원안정화대책」의 발표 이후 가시화되고있는 학원탄압을 토대로 총선이 걸려있는 중요한 시기에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명백하다.

대학신문이 경험을 쌓기 위한 실습지가, 대학당국의 단순 홍보지가, 사회와 유리된 관념적 학술지가 아니라면 대학신문의 전보성과 자율성은 명백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할때만이 언론이 생명을 지닐 수 있는 것이며, 사회를 이끄는 올바른 나침반이 될 수 있다.

흡산의 소리

진리를 깨달은 소중한 경험

—공장활동을 다녀와서

겨울방학중 약 한달동안 노동자들의 처지와 현실을 체험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성을 배우기 위해 공장활동을 하였다. 충분한 사전교양이 없었던 상태에서의 공활이었지만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알게 되었다.

내가 다닌 공장은 소기업체로 작업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40분, 중간 휴식시간은 10분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특하면 잔업이 있고, 사장이 정해놓은 제품 생산 갯수를 맞추기 위해서 기계의 안전장치를 끄고 일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까지 감수하면서도 댓가로 받는 돈은 시간당 천원이 약간 넘는 값은 공부.

말로만 들어왔던 노동자의 생활을 직접 겪으며 느낀 것은 정말로 우리의 현실 사회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도 몇십만원, 누구는 자리에 앉아서 몇백만원을 버는 세상. 이토록 노동가치가 무시되는 사회에 존재하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은 서로 적대적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 공활을 통해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근래에 자본가와 정권은 수출적자와 과소비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참고 열심히 일하자는 구호로 임금 인상률을 억제하고 있다. 누가 게으름을 피우고 누가 흥청망청 쓴다는 말인지 참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그토록 피땀을 흘리며 번 돈이 고작 몇십만원인데 과소비를 할 돈이 어디 있으며 또 쓸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것이 노동자들의 처지이며 현실인데 자기와 자기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는 노동자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입을 할만큼 정당한 댓가를 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말말을 하는 정권과 자본가들을 불매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다.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하여 아침 일찍 출근하는 노동자들, 자기가 돈을 벌면 노동자들이 주인되는 그런 공장을 만들겠다는 소박한 꿈을 가진 노동자들을 접에서 보면서 노동자들의 근면성과 사상의 건강성을 가슴깊이 느끼게 되었다.

공활 과정에서 노동자의 삶을 체험하며 배운점도 많았지만 몇가지 아쉬움도 남는다. 처음 해보는 공활에 사전 교양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자세로 공활에 임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잘 몰랐었고, 취업하는 과정에서도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않아서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공활기간 중에는 같이 모여서 생활반성도 하고 느낀 점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전혀 마련되지 않아서 수동적으로 작업에만 임하게 된 문제점이 있었다.

다음 공활에서는 철저한 사전교양과 체계적인 진행으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공활을 준비하는 주체들이 성실히 임하였으면 한다.

〈자연·전신2 조현대〉

독 자 만 평

탈출 준비 완료!

〈서학·독어3 조충연〉

질점다리

노천지하방 복지대책을 강구한다

문 학내 지하생활공간의 실태에 대해서는 지적이 나온지도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다. 특히 서울캠퍼스의 노천극장은 공간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하룸에서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겨울철엔 난방대책이 전무한데다 전열기구 사용까지 금하고 있고 여름철이면 벽을 타고 물줄기가 내려올만큼 습기가 심하다. 있으나마나 허술하게 달려있는 문짝도 문제지만 복도엔 불이 안들어오는 형광등이 더 많다. 그리고 방음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제구실을 못하여 공연분과와 학술분과가 함께 지내기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음료자동판매기도, 화장실도 없고 먼지가 쌓여가는 노천극장 지하에서 공간활용 미명하에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건지 책임자와 해명을 듣고 싶다.

답 서울 캠퍼스 노천극장은 지하방의 깊이가 배수관보다 깊어서 습기가 차게 되는 이유로 화장실 설치는 설계시부터 이렇 수 없이 제외되었다. 문짝과 환기통, 전기 시설에 대해 관리부에서는 『작년 2학기 시작무렵에 일괄적으로 점검하여 보수를 한 상태이고 고장신고가 들어올 경우 수리를 해주고 있다』며 노천지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관리과에 불편사항을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고, 『새학기 들어 1, 2주내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하 내부 청소문제는 현재 용역원들의 인력이 부족하고 노천지하는 학생자치 생활공간인만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주기를 부탁했다.

현재 노천지하에 있어서 형광등 하나, 문손잡이 하나보다 더 급한 문제는 노천지하방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소화시설이나 시설물들의 상태를 점검해주는 뚜렷한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당국은 조속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복지시설을 점검해 주는 관리주체를 세워야 할 것이며, 노천지하 생활 학생들도 기본적인 생활공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난방, 방음, 방습 장치등의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학교당국과 대화를 벌여야 한다.

함께 실천하고픈 작은 이웃사랑

—공부방 활동경험을 소개한다

흙밭, 새학기, 시작 이러한 단어들이 화려한 불빛과 함께 우리들을 희망차게 만드는 때가 돌아왔다. 신입생은 신입생대로, 재학생은 또 나름대로 지나온 생활을 바탕으로 보람되고 생기있는 대학생활들을 계획할 것이다.

실천의 열의를 가진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그리워지는 나이기에 지난 일년간 경험한 공부방 생활을 함께 일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소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줄 적어본다.

아마도 지난 5월쯤으로 기억된다. 내겐 생소하기만 한 「공부방」이란 곳을 처음 견학(?)한 때다. 무허가주택이라고 하는 판자집에서 아이들과 처음 만났을 때,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 아이들이 지닌 순수함을 나는 감사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흠칫흠칫 놀라면서, 그래도 자신의 고민을 소탈히 말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서 나는 많은 것을 배운것 같다.

엄마, 아빠가 모두 일터로 나가시고, 술에 만취하신 아빠의 술주정을, 거기에 엄마의 고함소리를 듣고 자라기는 하지만 꿋꿋한 아이들의 웃음을 볼 때, 나도 웃음을 짓곤 한다.

공부방이라고 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간단히 말하라면, 그 아이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숙제도 봐주면서 놀이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말이다.

언젠가 아이들과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짓는 시간을 가졌었다. 붉은 도깨비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 다정한 친구에게 띄우는 편지의 내용에, 나와 아이들은 서로의 편지를 돌아가며 읽은 기억이 난다.

한번은 아이들과 판화를 찍다가 잉크를 엎어뜨려 바지에 묻고, 얼굴에 묻고 정말 난장판이 되었다. 하지만 고무판화가 검은색 잉크로 물어나올 때, 그 아이들의 표정은 정말로 나를 신나게 했다. 이 밖에 아이들이 내게 들려주던 우스운 얘기들을 이 지면에는 모두 담을 수 없을 것 같다.

지난 10월쯤엔가 성남에 있는 공부방 아이들을 학교로 초청한 일이 있었다. 모두 다섯군데의 공부방 친구들이 자원 교사및 실무자 선생님들과 함께 장기 자랑및 게임을 했었다. 생각보다 시간적 여유는 없었지만 그네도 공부방 친구들—새순, 은행골, 샘, 열린, 글렁쇠 공부방—을 모두 만날 수 있어서인지 아이들의 좋아하던 모습은 우리를 흐뭇하게 했다. 얼마 지나지는 않았지만 겨울방학동안 다섯군데의 공부방이 한데모여 겨울 학교를 개최했었다. 풍물반, 세계 여행반, 판화반등으로 반을 나누어 며칠동안 우리는 아이들과 북과 장구를 두들기며 얼마나 흥분했던지. 마지막 날, 탈춤을 배웠을 때,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밝게게 상기된 얼굴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대중 가요, 판송에 우리의 웃음, 우리의 가락을 잃어간다지만 그 날의 그열정은 그런 말을 무색케 하기에 충분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었다.

혼히들 현대사회가 각박해져 간다는 말을 하곤한다. 아이들과 친구되는 이러한 작은 이웃 사랑이 거창하게 국가, 사회적 차원이라고는 말하고 싶지않다. 하지만 그러한 만남이, 곧 인간적 만남 그 자체가 더 소중하며 더욱 값진 것이 아닐까!

가끔은 이러한 경험을 공유할 친구가 아쉬울 때가 있다.

이느덧 3月이라지만,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 소리와 더불어 나의 봄은 벌써 무르익나보다.

〈서학·헐가리2 김진열〉

뭘, 아직은 중저가시대인걸

올라가는 등록금에 굽어지는건 우리 부모님 허리뿐. 부모님 죄송해요.

—눈물젖은 불효자—

등록금이 뭐길래.

—김×현—

이럴줄 알았으면 말뚝박을걸.

—갓 제대한 복학생—

야! 막 내려.

—화난이—

곧 8자리수 시대가 도래하리라.

—예언자—

에고, 돈이 뭔지. 돈이 웬수라 안카나.

—L87—

주제:드디어 막을린 등록금 백만원대 시대

다음주 주제는 「새내기들아, 대학이란…」입니다.

야! 심하다.

—심한이가—

—이사장—

「조금만 더 주세요」하다가 배터져 죽은 얘기 제단은 못 들었다더냐.

—하이씨—

수업이 짧잘한데 나도 대학하나 세워야지.

—욕심많은 제빵—

백 지대자보 너도 백 만원대 그 녀석과 한통속이지?

—나—

급기야 우리는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고야 말았군요.

—억울한 여자—

십년 안엔 천만원 넘겠네.

—숭내미—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대학신문을 통해 돈을 벌어보겠다는 검은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광고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대학신문에 맞는 광고를 싣기 위해서는 올바른 틀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대학을 상품시장으로 전락시키는 성상품화 광고, 외자기업이나 다국적기업 이미지 광고를 비롯한 사대문화 조장광고, 시기별, 계기별로 외대학보의 논조와 위배되는 광고는 철저히 통제하고 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애교심 함양과 민주사회 건설과 같은 생활문화 캠페인 광고를 적극, 개발 육성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당국과 학생이 하나가 되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때만이 건전한 광고, 건강한 외대학보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외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외 대 학 보

"우리속의 나의 존재를 확인한 수련회"

서울, 철저한 준비로 알찬행사 진행
용인, 단대별 주최로 하부단위 강화

이번 신입생 수련회는 많은 신입생의 참여와 호응속에 원활히 치러졌다.

대학생활 교양및 일반교육을 위한 본교 92학년도 「신입생수련회」(이하 수련회)가 대학당국의 준비하교와 더불어 서울캠퍼스는 총학생회주최로, 용인캠퍼스는 예년과 달리 각 단대주최로 각각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 용인캠퍼스는 예년과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각 단대별 준비및 기획으로 지난 2월 24일(월)부터 26일(수)까지 있었던 용인캠퍼스 수련회는 첫날 본교에서 수강신청등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총학생회 주최 「입학식」과 「나의 사랑 왕산」등의 강연회와 집체극 「온 누리에 피어나는 꿈」등으로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각 단대 집결지로 이동, 본격적인 준비학교가 진행됐다.(서대-본교, 동대-부여, 인문·사회대-천마산, 자연대-덕평)

예년과 달리 대폭 늘어난 신입생 1천3백여명을 비롯 1천8백여명의 참가생은 왜곡된 제도교육에서 탈피, 올바른 역사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는 기조아래 5개 단대의 유사한 행사일정표로 강연회 노래공연, 춘극, 대동놀이, 밤불놀이등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그밖에 과별·조별의 만남, 토론 및 장기자랑등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캠퍼스는 지난 2월28일(금)부터 3월1일(일)까지 2박3일간 경포 리조텔에서 신입생 1천2백여명이(재학생 포함 1천7백여명) 참가한 가운데 단대·과·소조별 모임과 풍물패 공연, 전체행사인 교육방송국의 오픈 스튜디오, 노래공연, 동아리 연합공연등의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총학생회장·이장욱(서양·노어과·88)군은 『6·3이후의 모교에 대한 사랑의 부족은 학생회사업을 어렵게하고 고립·분산적인 운영을 초래하게 했다』며 이번 행사의 큰 주제인 「외대사랑의 꿈과 희망을 담아」를 통해 『6·3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학생회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의 발판이 되는 애교심을 함양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이번 행사의 목적을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용인캠퍼스 단대별수련회는 공간부족과 추위로 인한 시간소비와 장소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단대·과학생회의 자립화및 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시도로 평가됐다. 하지만 행사일정 지연 및 취소등의 문제와 하부단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학생들의 사전교양학습의 부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반면, 후기대학입시 연기관계로 행사개최장소 등 여러문제가 발생했으나 주체들의 사전교양과 내실있는 준비로 순조롭게 진행된 서울캠퍼스 수련회는 단대별로 신입생의 대학생활 틀거리 마련과 주체및 명만이 아닌 하부단위의 학생들의 사전 교양미 미숙했음이 지적됐다.

또한 올해 양캠퍼스 수련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학생과 신입생의 공동생활과 조별모임의 활성화로 인한 친목도모등 인간신뢰의 상승과, 단순한 사상주입이 아닌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현실사회역시에 대한 간접적 문제인식에 노력했다는 긍적적 평가와 아울러, 수련회비의 고다 지출로 신입생·재학생 모두 부담이 컸다는 공통된 문제점을 안고있다.

이와 관련해 양 캠퍼스 총학생회는 『아무 근거없이 6만원이 인상된 순수입학금에 별도로 수련회비는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후 교육재정확보 부채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결의했다.

현 신입생 일반교육 방식을 보면 용인캠퍼스의 오리엔테이션은 학생측 수련회에 흡수된 상태고, 서울캠퍼스는 오리엔테이션 기간때 과단위로 예비준비학교가 이루어져 실상 거의 모든 행사를 학생들이 담당한다고 볼수있다.

민주적, 합리적으로 책정된 예산속에 대학당국의 보조, 골간조직강화로 교양된 하부단위의 재학생들의 적극적 참여, 학생들이 행사전반을 담당하는 자주적 신입생 일반교육으로 이루어진 수련회는 자주적 대학생활의 지침으로서의 본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속의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외대의 주인임을 느꼈다』는 신입생 김영호군(동학, 일본어과)의 말처럼 해마다 들어오는 신입생들에게 주체의식을 심어줄수 있을것이다.

사 령

임

편집장:강인숙(동양·이란어3)
〈이상1명 3월3일자〉

면

편 집 장:주재영(인문·철학4)
논설위원:이원영(서양·독어4)
정성엽(동학·아랍어4)
〈이상3명 3월2일자〉

6·3 항소심 중형 선고

폭행사실부각해 정치적의미 은폐

지난 2월20일(목) 서초고등법원에서는 6·3정원식총리 항의시위와 관련 실형을 선고 받은 최원일(법·법학3)·공숙관(법·법학4)·박광렬(서양·영어3)·이용규(사범·독교4)군의 3차에 걸친 항소심 심리를 정리하는 선고공판이 열려 최원일·공숙관·이용규 군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박광렬 군에게는 징역2년 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직 배워야 하는 학생의 입장이고 젊은 혈기임을 잘 알고 있으나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이번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해도 일국의 국무총리를 집단 린치한 것은 그 죄가를 달리 받아야 한다』고 판결문을 통해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항소심을 통해 조금이나마 집행유예의 기대를 걸었던 기소자들의 학부모와 동료 학생들에게는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이에 앞서 13일(목)에 열렸던 전갑기(상경·경영3)·김용규(정외·신방3)·박상옥(상경·경제4)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전갑기 군이 실형1년, 김용규·박상옥 군에게는 실형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3일 6·3 첫 항소공판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며 『민주사회에서 법에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는 의사표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적 판론만을 고수하며 변호사쪽에서 제시한 당시의 공권력에 의한 강경대·김귀정 등의 사망에 따른 학생들의 심리상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평가·판단도 하지 않은 가운데 학생신분임을 거듭 언급하며 1년 내지 6월의 형감량만을 했다.

현재 6·3과 관련하여 실형을 받고 수감중인 이들은 모두 12명으로 폭력범으로 분류돼 수감 중 이다. 하지만 대통령 특별령에 따른 전원구속, 기소자 중형이라는 방침과 재판부에서 말하는 「사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실형을 선고 한다는 입장은 재판부가 정치적인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구속자들은 정권이 인정하지 않는 정치범이 되어 시국관련 구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도 부당한 처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원일 군 등 항소심 공판을 끝낸 이들 수감자들은 남북합의서가 채택, 교환되던 지난 2월18일(화) 전국 27개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9백여 양심수들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이에 동참, 공동연대 단식농성에 참가했다.

교편위, 재정난 심각

학생회 연계로 교지대인상 논의

연 2회 발간으로 90년부터 예산 적자난을 겪었던 본교 교지편집위원회(이하 교편위)의 교지대 인상문제가 92년 1학기 개강과 함께 학생처·학생회와의 논의, 교편위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또다시 제기됐다.

교편위는 보다 시기에 맞는 학내의 문제들을 지면화하고 학우들의 참여공간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 90년에 교지를 2회 발간했으나, 지출비가 1년 총예산 2천5백만원을 초과(1회발간비:1천5백만원), 다음해 1학기사업을 30만원으로 운영하는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되면서 올해 교지대 인상문제가 다시 거론된것이다.

교편위는 지난 1월 학생처와의 논의 결과, 92년 1학기 등록금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관계로 2학기때 고려해보겠다는 불확실한 답변만을 들었으나, 양캠퍼스 총학생회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공유, 협조적 자세를 보여 서울캠퍼스에서는 확대 운영위원회에서의 공식논의가 3월 안으로 있을 예정이며, 용인캠퍼스는 중앙운영위원회, 1차 확대운영위원회의 논의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자료의 신빙성을 살리기위해 2월에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로부터 70%의 교지대 5백원 인상 동의를 얻어냈다.

이와 관련해 교편위 편집장 김광태(동양·아랍어3)군은 『1부발행비가 1천3백원으로 인상, 1인1부 배부를 기준으로 하여 92년부터 년 2회 재발간됨을 감안할때 기존 1회 발간시 책정된 교지대(1천원)로는 사업운영의 난항을 맞을것』이라며 『결국 학생들이 부담하게 되는 문제이므로 학생들의 긍정적 이해와 동의에 의해 교지대 인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학언론탄압 가시화

대학신문의 주인인 학생, 주인의식 필요

학원안정화대책실시이후 대학언론에 대한 탄압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학당국과 대학언론 기자와의 마찰은 그리 생소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는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것은 학칙개정을 토대로 학점을 적용하여 기자들을 해임시키고 심지어는 기존의 신문발행 체제마저 주간교수가 임의로 바꾸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신문사의 경우를 보면 지난 1월과 2월에 학생기자의 학점이 3.0이 안된다는 이유로 편집국장을 비롯하여 5명이 해임되었다. 그 이후 고대신문사 홍기선(신방과)주간교수는 신문 체제에 대한 새로운 계획안을 수립하여 고대신문에 학생기자들의 참여폭을 대폭 축소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그 계획안을 간단히 살펴보면 「기존의 기획간사제를 폐지하고 부주간직으로 중견언론인을 영입」 「학부생의 국장, 부장제를 폐지하고 신방과나 각 대학원의 학원생으로 구성」 「시험에 의한 수습선발제를 폐지하고 신문학교를 개설하며, 그것을 청강한 지망생을 대상으로 주간교수가 선발」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해 고대신문 학생기자들은 『이러한 주간교수의 체제개편안은 고대신문의 전통을 단절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이 개편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고대신문이 단순히 언론실습지로 전락할것』이라고 주장하며 체제개편 반대와 편집국장과 취재부장의 해고조치 철회를 주장하며 호외발행과 총학생회와의 연대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단순히 고대신문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연세춘추의 경우, 학점이 2.5가 안된다는 이유로 기자들이 해임된 상태이며, 건대의 경우도 신문사 규정집을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바꾸어 학점이 1.7이 안되면 해임되고 1.7에서 2.0시이면 한학기 휴직이라는 조항이 생겨 이번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교도 예외는 아니다.

「학생기자 임명시 성적기준은 전(前)학기 평점 2.0이상인자로 하되 단, 92년 1학기 적용기준은 평점 1.5이상인자로 한다」라는 결정을 외대신문사 운영위원회에서 내린 상태이다.

이와 같이 광폭하게 진행되는 대학언론탄압에 맞서 서울지역 대학신문 기자들은 대표자 모임과 분과 모임을 가지며 각 사의 실정들을 파악하고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신문을 단순히 학생들의 실습지나 대학의 홍보지로 전락시키려하는 대학당국의 의도에 맞서 대학신문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대학신문의 주인인 학생들의 주인의식이라 하겠다. 그것은 대학신문이 바로 대학과 대학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학우들의 등록금으로 만들어지는 대학인을 위한 대학인의 신문이기 때문이다.

1학기 학사 일정

▲3월11일(수)~12일(목)	수강신청과목 정정및 확인
▲4월 3일(목)~10일(금)	'91후기 졸업시험
17일(금)	'91후기 졸업시험 성적보고서 제출마감
	'91후기 졸업논문 제출마감
21일(화)~27일(월)	1학기 중간시험
▲6월 4일(목)~ 5일(금)	제2학기 수강 신청
12일(금)~19일(금)	제1학기 기말시험
22일(월)	하계방학 시작

제47기 외대학보사 수습기자모집

자주언론의 새시대를 이끌어 갈 외대학보의 새일꾼을찾습니다.

▲대상:서울·용인캠퍼스 92학번
▲전형방법:1)자기소개서 쓰기
2)토론회 개최
3)면접
▲전형일자:·1992년 3월 17일(화)~19일(목)
·17일:1차모임(자기소개서 쓰기)
18일:면접
19일:2차모임(토론회)
▲원서마감:1992년 3월 17일(화) 오후5시
▲모집부문:일반, 사진, 만화기자
▲원서교부및 접수:서울·용인캠퍼스 학생회관 2층 학생기자실

외 대 학 보

외통수 〈26〉

김호일

광고는 다른 형태의 기사입니다

1/3

외 대 학 보

남북합의서 채택과 한반도 군축의 전망

김 창 수
〈평화연구소 연구원〉

합의서 채택의 배경과 성격

남북합의서의 각조항을 살펴보면 그동안 남북한이 주장해왔던것과는 약간의 차이를 가지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것은 합의서 채택의 당사자가 남북한 당국이기 때문이다. 즉 합의서는 남북한의 부분적 양보의 결과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합의서를 남북한 당국의 정략적 필요성때문에 탄생한 문서로 격하시켜서는 안된다. 이러한 견해는 합의서가 채택되기까지의 배경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다.

합의서 채택의 결정적 배경은 통일운동의 고양과 국제관계의 변화이다. 불과 4~5년 전만 하더라도 통일을 바라기는 하지만 「통일이 가능할까?」하고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통일운동의 고양으로 이제 통일은 현실가능한 민족의 문제로 다가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북한 당국은 통일에 대한 민족의 염원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남한정부가 합의서 채택을 통하여 남한정부가 의도하는식으로 통일을 추진하고 이를 권력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군사문제 해결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합의서의 내용이 통일에 도움이되는 것이라면 남한정부의 불순한 동기를 경계하면서도 합의서는 지지해야 한다. 사실 합의서의 내용은 그동안 통일운동이 고양되어지면서 제기되었던 통일을 위한 요구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냉전체제의 해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냉전질서의 변화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남북한 역시 냉전시대의 대립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을 형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변화하는 남북관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일 것이다.

남북합의서 채택 이후 남북관계는 통일을 향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 새로운 단계의 성격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자본이 주도하므로 흡수통합의 조건이 무르익는 상태라고 분석하는 경향도 있다.

분명 사회주의권의 와해 이후 미국과 한국자본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와해=북한멸세」라는 등식을 곧바로 세우고 그 결과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미국과 한국자본을 쥐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지나친 단순화일 것이다. 한국정부 역시 단기간의 흡수통합을 바라지 않을 뿐더러 북한역시 체제관리능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첨예한 군사대결 상태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느냐가 통일문제에 보다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리라 예측된다. 특히 남북합의서에서 상호 불가침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군축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군축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질서 변화가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핵심요소가 되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군축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차이

북한은 분단이후 약 2백여 차례에 걸쳐 군축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58년과 87년에는 약 10만명의 감군조치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군축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은 군축이 통일의 전제조건이라는 인식과 군비증강에 따른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때문이다.

군비경쟁이 남북한의 경제발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군축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수치로 추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군비경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환하였을 때 경제적 효과가 뒤따른다는 사실때문에 군축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한다.

한편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결없는 평화통일은 있을 수 없다. 평화통일은 군사력에 의존하는 통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군축문제가 중요한 것을 바로 평화통일의 환경마련이라는 의미에서 비롯된다.

남한정부는 그동안 군축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 88년 유엔총회에서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최광수씨가 3단계의 군비통제원칙을 제시하면서 비로소 군축에 대한 입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군축에 관해서 남북한은 팽팽히 대립해왔다. 남한정부는 「선 신뢰구축, 후 군비통제」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반면에 북한은 「정치군사문제의 일괄타결」을 주장했다. 즉 북한은 실질적인 군사력의 감축을 강조하였고, 남한은 군사력의 관리, 감시에 비중을 두었다. 남한이 강조하는 신뢰구축의 내용으로는 △군사훈련 사전통보와 참관 △군인사와 정보교류 △군부대 이동에 대한 통보 △작통전화 설치 등이다. 북한은 △병력감축 △외국군철수 △대규모군사훈련중지 △신무기 생산과 반입금지 등을 내용으로 군축방안을 제안해 왔다.

군축에 대한 남북한의 대립은 합의서에서 충분히 조절된 것으로 보인다. 즉 합의서 12조에서는 신뢰구축과 군축을 병행한다고 표기되어있다. 이 결과 남한쪽이 주장한 신뢰구축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군축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의서를 남북한이 충실히 이행한다면 군축은 이제 당면한 문제가 된 셈이다.

군축 아직도 불투명하다

한국정부는 군축의 요구에 대하여 신국방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국방전략이란 고도의 기동력과 화력을 갖춘 정예지상군과 해군, 공군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현대화하는 계획이다. 군사력 현대화의 결과로 각종 첨단무기를 구입하게 됨으로써 한국군의 무기수입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F-16전투기 1백20대 구입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은 5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50억 달러에서 60억달러가 소요되는 차세대 구축함 건조계획도 추진중이다. 별들의 전쟁이라고 알려진 전략방위구상(SDI)에 참여하기 위하여 연구비용으로 92년도 국방예산에서 약5억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한국정부가 이처럼 군사력을 질적으로 증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군축의 정신에 위배된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군사력 증강이 군축에 대한 대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군축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증강한다면 군축의 의미는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핵사찰문제 역시 군축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소이다. 절프전 이후 최대 쟁점이었던 핵문제는 비핵화 선언으로 수그러지는 듯 하였으나 6차 고위급회담 이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이 핵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핵독점정책 유지와 북한개방화라는 구상 때문이다.

남북합의서 채택에 따라 한반도 군사질서 및 한미관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합의서 채택, 통일운동의 고양과 국제 냉전 질서 변화의 산물

핵사찰 압력, 남북한 군축의 장애요인·한반도 분쟁가능성 위협

핵사찰은 주권침해와 정보사찰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미국은 핵사찰을 북한에 강제함으로써 북한 개방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듯하다. 북한으로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핵안전협정에 서명한 이상 핵사찰을 거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실질적인 핵위협능력을 보유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핵사찰 수용을 지연하는 것은 현재의 국제적 역학관계로 볼 때 핵사찰을 대미관계 개선에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은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한의 경제협력도 쉽지 않을 듯하다. 따라서 핵문제는 핵사찰수용시기, 사찰대상, 방법을 놓고 여전히 92년도에도 쟁점이 될 것이다.

지난 2월27일 열린 핵문제 해결을 위한 2차 고위급회담대표 접촉을 보더라도 핵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이 접촉에서 남한은 △핵통제위원회를 개최한뒤 한달안에 전면적인 동시사찰을 실시하고 △임직한 사찰규정절차를 마련하며 △동시사찰 이전에 시범사찰을 주장했다. 북한은 △외부의 핵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보장 △영변과 남한내 미군기지에 대한 시범사찰 등을 제시했다.

남한은 신속하고 엄격한 사찰에 중점을 두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미군철수를 강조하고 있다. 남북한이 이러한 입장차이를 보이는 것은 핵사찰의 방법, 대상에 대하여 일반적인 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핵사찰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명분을 놓고 핵사찰과 아울러 북한을 사찰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이를 조미관계 개선으로 활용하려는 북한의 구상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대립의 중요한 원인이다.

분명한 것은 핵사찰의 공정성이 내외적으로 분명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핵사찰 문제가 분쟁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핵사찰을 추진하기 위하여 분쟁가능성으로 위협한다면 그것은 우리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하는 것이므로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핵문제의 해결방안은 자주적 입장을 취하며 핵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는데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과대한 방위비 지출부터 중지해야

92년 방위비는 약8조 7천억원이다. 한국정부는 해마다 방위비를 증가해왔다.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침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합의서가 채택되었어도 한국의 방위비 증가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군사비 지출 누계가 남한에 비해 앞서고 있으므로 96년까지는 군비를 계속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방백서 1991~1992」에는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질적으로 앞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북한의 경제력을 이야기할 때는 석유가 부족하여 전투기조차 제대로 훈련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다가도 북한의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는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한다. 훈련도 하지 못한 전투기가 위협적이라니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러한 모순은 정부가 「북한의 군사력 위협론」을 근거로 군비를 증강하려고 하므로 발생한다. 사실 남한의 군사비는 이미 지난 76년부터 북한을 앞서기 시작했다. 90년 이후부터는 남한의 군사비가 북한에 비해 2배 이상이다. 이는 국방부도 인정하는 바다.

이제 「북한 위협론」이라는 악령에서 벗어나서 남북한 모두 군축을 실시해야 한다. 사실 남북한의 군비경쟁은 남북한체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군사비를 줄여서 경제건설과 민중복지에 활용한다면 그만큼 우리민족은 발전하는 것이다.

복무기간 단축과 지원제 도입을

군사비 감축과 함께 군병력 감축, 예비군과 민방위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군의 총병력은 정규군 65만과 경경, 방위병을 포함하여 85만을 넘는 대규모이다. 여기에 예비군과 민방위까지 합한다면 그야말로 거대한 병영국가인 셈이다.

북한역시 40만에서 1백만으로 추정되는 정규군과 노농적위대등 예비병력을 갖추고 있다. 남북한의 청년들이 동포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의 주인공인 셈이다.

병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병력을 대규모로 감축하여야 한다. 남북한이 군축협상을 통하여 적정수준으로 감축하되, 병력은 전체인구의 1%가 적당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남북한 병력의 총합이 60~70만이 되는 선까지 감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군복무기간역시 20개월 이하로 감축이 불가피하다. 또한 현재의 징병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지원제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비군과 민방위제도는 준군사적인 성격에서 탈피하여 재난대비 등에 필요한 규모로 전환되어야 한다.

주한미군 2천년 이후까지 주둔

군축문제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변수는 한미관계이다. 한미군사관계는 냉전과 분단을 지탱시키는 물리적 기반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군사관계가 변화하는 범위에 따라서 남북관계의 변화범위를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미군사관계를 민족의 이익에 도움이 되게 재편하여야한다.

미군은 동북아에서 신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체제 구축, 군사력의 전진배치 유지와 한국·일본의 방위분담화대, 전시지원체제강화 등을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부분적으로 감축하되 경보병사단을 중심으로한 신속배치군체제로 2천년 이후까지 주둔할 예정이다. 그리고 미군에 대한 한국의 지원규모는 크게 증가하여 92년의 경우 정부예산지원인 직접지원비 1억5천만 달러와 간접지원인 기지제공비 등을 포함한다면 3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미군에 대한 전시지원을 위하여 이미 지난 91년 11월에는 전시지원협정이 체결된 바 있다. 미군의 일방적 주둔을 보장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도 현재로서는 개정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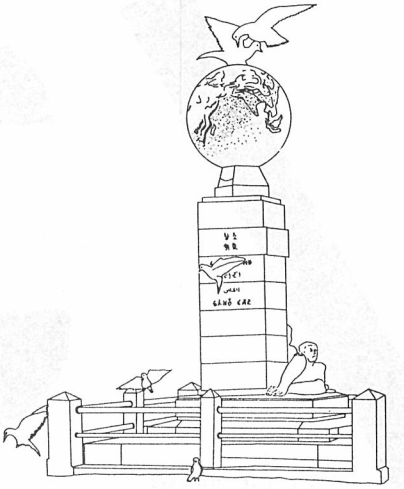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미군의 군사적 패권주의에 별다른 변화가 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군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는 경향이다. 미국 영향력의 경향적 저하가 통일에 미치는 여파는 주한미군문제와 조미평화협정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특히 제차 개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결국 「민족자주」에 입각한 통일운동의 진전만이 현재의 남북관계 변화를 진정한 조국통일의 길로 이끌 것이다.

진리 · 평화 · 창조

다양한 학문을 탐구하는 外大人

교육 이념

진리
평화
창조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 이념은 자유와 민주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학생 각 개인의 개성 창달과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여 장차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이 이념을 구현하고자 인문, 사회 및 자연과학 등 광범위한 교양을 함양시키는 동시에 본 대학교의 특유점인 외국어를 토대로 각각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교수·연구함으로써 국제 문화교류 및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韓國外國語大學校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NCC·민변에서 주최한 「국내외 정세와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공청회 정리

분단시대 정세변화와 인권운동의 방향

KNCC · 민변, 국내정세 변화를 인권의 시각에서 조명

남북관계 급진전으로 이념에 근거한 인권탄압 없어져야

최근 들어 「민주화 실천가족 협의회」에서 「6공 4년간의 양심수는 5천5백명으로 5공 7년간의 4천7백명을 이미 넘어섰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요사이 노정권이 외국방문중 유달리 목소리를 높여 강조하는 「우리나라에는 단한명의 정치범도 없다」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극심한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는 ILO가입, 남북 합의서 교환등 기층민중의 최소한의 요구가 정부의 대외적조건에 의해 현실화되었다. 이상의 문제들이 당장 현실로 다가온 지금, 이를 어떻게 착취의 굴레를 벗고, 평화통일을 향하는 발판으로 엮어내야 할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놓여있다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 때 지난 2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인권위원회(이하 KNCC)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 공동주최한 「국내외 정세와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은 이상의 국내정세를 인권의 시각에 묶어내고 있다는데 주목할만하다.

공청회는 1. 유엔가입과 남북합의서 발표에 따른 한국사회의 인권(이장희·외대법대교수·국제법) 2. 일본의 전후처리와 재일한국인 문제에 대한 국제적 활동의 성과와 한계(이인하 목사, 전(前) 일본NCC회장 역임) 3. 국제인권 B규약과 선택의정서에 대한 인권보호절차(조용한 변호사·민변) 4. ILO가입과 노동기본권(피정선·국제 노동연구소 소장)의 순으로 발제되었다.

공청회의 주제이며 방향성이라 할 수 있는 「유엔가입과 인권문제」를 발제한 이장희교수는 인권의 문제는 유엔창설 이후 개별국가의 내용이 아니라 국제법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그 서(序)를 열고 있다.

결국 이는 작년 9월18일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은, 남북한 억시 유엔의 테두리내에서 인권을 보호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5천5백명의 양심수가 엄존하고 있는데, 이교수는 이렇듯 인권에 대한 무지, 억압의 근거를 「분단시대의 인권장애요소」로 이름짓고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 첫째로 국가가 사회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유교적 국가관이며, 둘째로 일제시대하 국가의 독립성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국가의 개념이 인권을 앞섰기 때문이며, 세째로 미군정이후 민주주의의 싹이 잘리워지고 이념이 대립케 되면서 국가가 우선시되고 인권의 가치가 묵살되어 갔으며 바로 이것의 구체적 법화(法化)가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교수는 그러나 이제 제도적으로는 UN동시가입과 합의서 교환에 따라 상대방을 반국가단체가 아닌 국제적 차원으로 보게되므로, 이데올로기에 근거해 소속주민의 시민, 정치적 권리, 즉 인권을 억압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합의서를 실상의 국내법적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해 이교수는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한 법체계 정비의 대안을 들고 있다. 그 첫번째로 북한을 「미수복지구」로 못박은 현재의 완상헌법에서 통일지향성의 장정헌법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둘째 합의서 정신에 맞게 국가보안법을 수정하고, 세째로 고문방지협약 등에 가입해 실질적으로 인권보장을 해나가며, 넷째로 일본, 중국등 동일문화권과의 교류를 통한 인권 상호협력기구 건설등의 제안을 한다음, 「인권문제는 민주주의의 싹」이라며 발제를 마쳤다.

이에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인하 목사는 「일본의 전후처리…국제적 활동」에 대한 글에서 교포들의 법정투쟁 실례와 보상법의 배타주의를 파헤치고 있었으며 정부의 소극성과 한국인들의 무관심의 각성을 촉구하며 보상문제가 단순한 「돈몇푼」의 문제가 아님을 부각시켰다.

질의응답에 이어 속개된 세번째 발제에서 조용한 변호사는 「국제인권규약과…보호절차」를 발제했다.

국제인권규약에는 경제, 문화권리규약인 A규약과 시민, 정치적 권리규약인 B규약이 있는데 이중 B규약인 인권규약은 작년 7월10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되며, 이는 단순히 일정범주의 인권을 추상적, 선언적으로 보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권침해를 당한자가 그 피해를 국제기관에 호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히고 있다.

ILO와 노동기본권이란 제목으로 국제노동연구소 피정선소장에 의해 발제된 네번째 글은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ILO회원국 신청에서 준수해야 하는 1호 의무사항이며, 완전한 조직결성의 자유보장이라는 ILO의 가장 기본 원칙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이글의 후반부는 주로 1948년 제정한 87호 조약, 즉 「결사의 자유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조약」 8개항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례처럼 굳어져버린 노동법 독소조항 즉 제3자 개입금지, 정치활동금지, 독점 유일노조 강요등의 위배사항에 대한 간략한 해설로 끝났다.

이상으로 발제들을 요약해 보았다. 이번 공청회는 앞에서 언급했듯 변화하는 현정세를 인권옹호의 입장에서 풀이하려했다는 진취성을 보이고 있지만, 반면 짧은 발제로 인해 전문적인 내용만이 부각되어, 용어의 혼돈등으로 대중들의 이해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몇몇 글들은 새로 가입한 규약및 기구의 권리해석에만 급급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대명제와 다른 글과의 연계속에서 통일된 발제가 이루어지지 못한채 독자적, 단절적인 발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현재 KNCC인권위원회는 인권종합전문지 월간 「인권」지를 창간하는등 보다 다양한 인권의 분출구를 찾아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KNCC 인권위와 민변의 노력들이 다음의 공청회에서는 보다 발전적인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

〈강인숙 본보 편집장〉

이 책

새내기들에게 권하는 올바른 대학생활 지침서

교정엔 이제 막 대학문에 들어서는 새내기들의 환기찬 발걸음이 가득하다. 자신이 「진리」라고 배워왔던 가치가 여지없이 부서져 나가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할 새내기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만한 책 몇권을 소개한다.

「캠퍼기를 벗고서2」는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들에게 「왜 대학에 왔으며 무엇을 성취하려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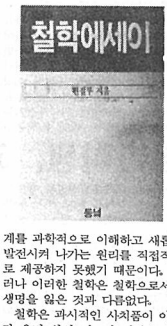
제1부에서는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생활태도나 의식, 사상이 입시위주의 교육을 받았던 고교시절의 생활교육, 교과서교육, 성차별교육 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게 한다.

제2·3부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복잡한 사회현실을 민중생활, 경제, 정치, 통일, 국제정치 문화 부문으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그 속에 존재하는 온갖가지 모순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제4부에서는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낡은 인간, 낡은 사회가 어떤 아픔을 먹고 파괴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 실렸으며, 마지막으로 대학생활의 구체적 설계에 도움을 주는글이 수록돼 있다. 대학생활을 시작함에 있어 올바른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으로 철학서 한 권을 권하고자 한다.

철학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이 어렵고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가 접해왔던 철학이 이 세



계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원리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은 철학으로서의 생명을 잃은 것과 다름없다.

철학은 과시적인 사치품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 그 삶의 방도를 개척해 나가는 무기가 되어야 한다.

「철학에세이」는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철학의 참의미를 되짚어 보고 세상을 보는 올바른 눈과 가치판단의 척도를 마련해 줄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와 정치등 사회전반의 시사적인 이야기를 실은 책 「노동자 이야기주머니」를 권하고 싶다.

「물가인상의 주범이 노동자들의 파업이요, 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른다」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본 그들의 논리에 불과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죽도록 일하는 노동자들은 맘놓고 살수 있는 집 한채 없는데, 몇안되는 재벌이 온 나라를 휘어잡고 있는 재벌공화국, 입으로는 통일을 외치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가당치 않은 법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가진 자들의 논리와 그 모순을 파헤치고 있는 이 책은 모두 서른다섯편의 흥미로운 꼭트로 이루어져 이해가 쉽도록 되어있다.

〈사회부〉

햇 글

■사회주의와 민주화 운동

(루카치지음. 박순영옮김)

현재의 세계정세속에서 『부르조아 민주주의는 결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루카치의 정치적 유언을 되새겨 보게 된다. 그는 스탈린의 정책이 공산주의를 일탈하는 과정과 동구권의 민주화운동이 소련군부의 무력앞에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지켜보았던 목격자였다.

이책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것이다.

〈한겨레 펴냄. 4천2백원〉

■노동운동론(레닌지음. 편집부 옮김)

이책은 1895년에서 1923년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 운동과 관련하여 레닌이 쓴 여러저작들을 위은 것이다. 이는 원래 전소비에트 연방 노동조합 평의회 노동조합평의회 출판사에서 1953년에 출판한 바 있었다.

본 논문집은 시기별로 질을 달리하는 사회주의 운동에 관해 그리고 그속에서의 노동계급의 혁명적 역할과 임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내용의 연구를 통해 혁명적 실천과제의 핵심을 짚어낼 수 있을 것이다.

〈소나무 펴냄. 5천2백원〉

■볼셰비즘과 10월 사회주의 혁명

(레닌 블라지미르 일리치 지음. 레닌 출판위원회 옮김)

과학적 혁명이론을 정립함에 있어서 오늘날의 경제주의적 기회주의와 아울러 수정주의, 개량주의에 대한 비판은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으로써 이책의 연구는 맑스·레닌주의 기치아래 혁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지침을 제시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므로 이 교본은 결코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다양한」해석을 주장하는 수정주의자들의 자료가 아니다.

이 교본은 특히 러시아어로 쓰여진 「레닌저작집」을 맑스·레닌주의 연구소가 영역한 영어판을 우리말로 직역한 번역서이지 번안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전진펴냄. 7천2백원〉

■1992년 임금지침 (전국노동조합 협의회 지음)

노동조합에서 임금투쟁을 준비할 때 필요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엮어진 책이다.

이책에서는 정부의 경제 이데올로기 공세가 명백한 허위임을 경제지표를 통해 밝히는 1992년 한국경제분석,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의 실상과 허구, 올해의 임금인상요구의 기준과 근거, 기업경영 분석방법과 임금인상 투쟁준비에서 마무리까지의 지침등을 그 내용으로 담고있다.

〈돌베개펴냄. 4천8백원〉

국제 교육원생 모집안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 감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학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본 대학은 이에 부응하고자 1990년에 국제교육원을 설립하고 매년 여름 방학기간중에 외국의 한국학 학자들과 해외교포들을 대상으로 국제 하계대학을 개설하고 있으며 1992학년도 아래 주요 일정계획을 참조하시어 해외친지 및 교포중 입학 할만한 대상자가 있으면 본 교육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기간:1992년 7월6일—8월7일(5주간)
2. 대상:외국인 한국학학자 및 해외교포
3. 위치: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캠퍼스
4. 하계대학 일정표
   - 5월 30일 …… 원서 접수마감
   - 7월 6일 ……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 7월 7일 …… 개강
   - 7월 17일—19일(2박3일) …… 수학여행
   - 8월 5일 …… 종강
   - 8월 6일 …… 졸업시험
   - 8월 7일 …… 졸업식

   *주말에는 시내관광 및 유적지 답방(비용은 수업료에 포함 되어있음)
5. 교육내용
   1) 한국어(초급, 중급, 고급):3학점
   2) 한국학:2학점
      1) 한국문학
      2) 한국역사
      3) 한국사회와 문화
      4) 한국정치와 경제
6. 원서교부와 접수
   1) 본 국제하계대학의 신청자격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로서 고졸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한다.
   2) 신청 원서는 안내책자뒤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을 이용한다.
   3) 사진은 4×5cm의 크기로 한다.
   4) 원서접수 마감일은 5월30일이며 접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한다.
7. 경비: $1,725
8. 1992학년도 국제하계학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께는 안내책자와 포스터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원 연락처:(0335)33—1714, 30—4131/2

1992년 3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교육원 원장

민주정부 수립의 전초전 총선투쟁

92, 93년을 '권력교체기' '대격돌기'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는 92,93년이 민자당정권의 재집권을 허용하느냐 아니면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마련하느냐 하는 중대한 정치적 격변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92,93년으로 가는 길목에 놓여 있는 14대 국회의원총선은 재집권을 꾀하려는 민자당과 이를 반대하는 4천만 민중과의 대결장이며 92,93년 투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장으로써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92, 93년 투쟁과 다가온 14대 총선을 둘러싼 객관적 정세와 4천만 민중의 주체적 역량정도를 잘 이해하고 예상되는 격돌을 주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민중의 거대한 투쟁으로 민주정부를 세워내는 문제는 역대 독재정권에 의해 가로막혀온 정치, 경제 등 전반에 걸친 대개혁을 실현함으로써 파쇼독재의 길을 민주화의 흐름으로 바꿔놓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정세와 우리 민중의 역량정도를 살펴보자.

노태우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낮은 10%의 지지율에서 볼 수 있듯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이다. 또한 그들 내부의 갈등 역시 역대 어느정권보다 극심하여 내분이 끊일 날이 없으며 이러한 갈등으로 멀지않아 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 예상된다. 민자당내의 분열과 파산은 우리 민중들의 투쟁과 민주정부 수립의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고 민중의 거센 투쟁에 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자당집권 5년동안의 실정과 노골적인 탄압 역시 민중의 거세찬 투쟁을 재촉하고 있다. 노태우의 허울좋은 민주화 공약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는 오히려 후퇴하고 우리 국민의 생활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양심수는 5공때의 두배에 이르고 88억의 무역적자, 외채의 급증, 경기침체로 허덕이고 있으며 매국적인 시장개방과 재벌위주 경제정책으로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 사정은 광범위한 민중을 투쟁에 나서게 할 것이다.

92, 93년 정국을 보면 민중의 민주대개혁의 요구로보나 이를 실현할 조직적 힘으로보나 정치적 격변을 승리로 이끌 힘과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민중은 지난 투쟁에서와 달리 자주 민주 통일에의 확고한 지향을 갖고 있으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발족함으로써 민중의 정치적 요구를 조직적 힘으로 담아낼수 있는 수위에 이르렀다.

그러나 낙관적 상황이 조성된다고 승리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노태우정권의 고도화되어가는 분열음모를 극복해 나갈때만이 92, 93년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14대 총선은 지난 총선과는 달리 된 6공 후반에 그것도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두고 실시된다는 점에서 6공및 민자당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과 함께 민주정부 수립의 전망을 확인하는 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공간에서 우리들이 이루어내야할 과제는 무엇일까?

먼저 이후 정치일정속에서 노태우정권의 재집권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민자당후보의 대거 당선을 막아냄으로써 여대야소 음모를 파탄시키고 민주국회를 세워내야 한다. 현정권은 사활을 걸고 민자당 압승을 이루어냄으로써 6공과 민자당의 합법성을 확인하려할 것이며 가능한한 개헌 가능 의석주(전국구포한 200석 이상)을 장악하려할 것이다. 이러한 의도가 실현된다면 민자당정권에게 자신감을 안겨줌으로써 내각제 개헌과 민주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불러오게 된다.

따라서 민자당의 개헌선 확보를 저지하고 미국과 노태우의 재집권 구도를 파탄시키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의 핵심적 과제이다.

둘째,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각 계급 계층의 대중투쟁을 활성화함으로써 반민자당투쟁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민자당의 학정속에서 억압당해온 각 계급계층의 열려진 총선공간에서 자신의 요구를 중심으로 현정권과 민자당에 반대하는 투쟁에 벌여냄으로써 민주정부 수립의 대중적 토대를 준비해야 한다.

세째, 전국연합이 내세운 후보를 최대한 당선시켜 정치권에 민주세력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된 전국연합후보의 당선은 이후 노골화될 민자당의 집권음모를 파탄시키고 전국연합을 전국민의 정치적 구심으로 만들어가는데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연초부터 노정권의 향보는 재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국민과의 약속이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선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가하면 선거공고가 나기전부터 대대적인 금권, 관련 부정선거를 시작하고 있다. 노태우 정권의 재집권을 위한 시나리오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반면 우리들의 대응은 외소하기 짝이 없다.

92, 93년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가슴벅찬 과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정권의 정치적 움직임에 보다 주동적으로 대응하며 더욱 힘찬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에 부여된 청년학생의 임무는 더욱 크다 하겠다.

〈사회부〉

14대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각 정치권 및 민족 민주운동 진영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민자당 재집권 막기위한 개헌저지선 확보로 민주 국회 쟁취

전국 연합중심으로 대중투쟁 활성화, 민주정부 수립토대 마련

「전대협」 임시의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태재준군을 만나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92. 93년 대 격돌기를 맞아 올해 전대협의 투쟁방향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알다시피 92.93년은 14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다. 때문에 노태우정권은 안정적인 집기집권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온힘을 쏟고 있고 전대협은 비롯한 애국 민주세력은 이를 저지하고 민중주도 민주대연합을 통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크게는 민주화 투쟁에 대한 올해 전대협의 투쟁방향을 말한다면 먼저 92. 93년 선거공간 속에서의 투쟁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작년 광역의회 선거처럼 민족민주운동 세력(이하 민민운 세력)이 선거공간에성 무력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선거공간에 주동적으로 참여하여 대중들의 자주적 힘을 모으고 민민운 세력의 정치적 역량을 높여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권력재편기를 앞두고 터져나올 대중투쟁의 흐름을 단일한 전선으로 모아내는 일이다. 때문에 민주진영의 대단결을 이루어 내고 반민자당 전선을 확실하게 그어내는 것이 현재의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선거공간의 적극적 참여와 대중투쟁의 활성화, 이 두축을 기반으로 올해 전대협은 투쟁에 나설 것이다.

△총선 투쟁에서 얻어야 할 정치적, 조직적 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정치적 성과물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단순히 의석수 몇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허무주의, 패배감, 불신감등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대중적 투쟁의 분위기를 창출해 낼것인가이다. 둘째는 민자당의 장기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저지선 확보이며 이러한 투쟁 방향을 바탕으로 전국연합을 대중들속으로 튼튼히 뿌리내리고 신뢰를 높여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직적 성과물의 경우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국연합의 강화, 그리고 민주대연합의 구축을 들수 있다.

△현재 전대협이 세우고 있는 총선 투쟁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민자당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토대구축, 즉 모든 애국 민주세력의 통일단결이 첫번째 원칙이며 다음으로는 대중투쟁을 기본으로 선거투쟁을 결합하는 것이다. 그것은 14대 총선을 바라보면서 선거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계속적인 대중투쟁의 활성화를 기본원칙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학생들과 민중들의 생활적 지향과 요구를 받아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생존권 투쟁의 옹호와 청년학생의 교육재정확보 투쟁을 다가오는 총선에서 내용적으로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각 대학가에서 동시에 맞물려 있는 등록금 투쟁과 총선투쟁의 올바른 결합원칙은 무엇이겠는가.

—중요한것은 등투 따로, 총선투쟁 따로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고 각 대학의 준비와 처지에 맞게 당면 사업들을 풀어나가는 것이다. 현재 전대협에서는 등투의 공동연대투쟁의 내용으로서 교육재정 확보투쟁을 벌이려 하는데 이것은 학우들과의 인식공유를 기본으로 하여 각 지구대협 차원의 선전전 강화, 백만인 서명운동 그리고 총선공간에서의 후보와의 정책적 결합등의 다양한 실천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임시의장을 맡은 소감과 제6기 전대협이 나가야 할 길을 말해 달라.

—올해 제6기 전대협은 전총련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우선 각 지역총련 건설을 강화할 것이며 두번째는 전대협 중앙위원회의 지도력을 튼튼히 하는것, 그리고 세째는 정치투쟁 뿐만 아니라 일상투쟁, 학원자주화 투쟁 등으로 전대협의 사업영역을 확장시켜내고 전문대운동등 부문계열 운동도 착실히 해 나갈 것이다.

이것들을 반드시 해 냄으로써 4천만 민중속에 새롭게 혁신하는 전대협이라는 이미지를 심고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민주적인 지도력 강화와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의 투쟁이 결실을 이루어 승리하는 전대협을 건설하는 것이 나의 소감이자 결의이다.

〈정리:박현숙 기자〉

청년학생의 이해와 요구로 총선투쟁 준비할 터

제6기 전대협, 지역총련건설강화, 사업영역 확대 목표

청년학생, 교육재정확보 요구로 총선투쟁 결합

개강을 맞이하여 전국 각 대학가가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그것은 매년 마찰을 빚고있는 등록금 투쟁 (이하 등투)과 함께 올해들어 대학당국의 학안대를 앞세운 반민주적인 학칙개정 움직임을 둘러싸고 학생측과의 한판대격돌의 조짐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92·93년 권력재편기를 맞아 당장 눈앞에 닥친 3·24총선을 필두로 학생운동진영의 정치투쟁에 대한 발빠른 행보 역시 등투와 맞물려 대학가의 쟁점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등투와 총선투쟁이라는 크게 두가지 중요사안에 맞부닥친 각급 학생회는 이 양자의 올바른 투쟁방향을 설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상반기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대협에서는 상반기 투쟁의 핵심사안이 될 등투와 총선투쟁의 올바른 결합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양 투쟁이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등투의경우 예년처럼 퍼센트 중심의 투쟁방식이 아닌 정부의 예산정책을 기반으로 한 교육재정확보투쟁(이하 교재투)으로 자래매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대협의 이러한 등투의 방향은 다가오는 총선공간 속에서 청년학생들의 생활적인 이해와 요구라 할 수 있는 교육재정확보를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의 개혁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다는 총선공간에서의 구체적 결합도 모색하고 있다. 즉 교재투를 매개로 학생대중들에게 현 정권의 교육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여 그 속에서 민주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선전함과 아울러 총선투쟁을 통한 올바른 교육정책의 수립을 전국민적 투쟁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에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각급 학생회단위로 등록연기투쟁을 비롯하여 각 지구대협 차원의 대국민 선전전, 서명운동, 후보와의 정책적 결합, 강령마련 투쟁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실천방안중에서 특히 후보와의 정책적 결합 및 청년학생 강령마련 투쟁은 선거공간에서 벌일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투쟁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후보와의 정책적 결합의 경우, 실질적인 민주대연합을 추진하는 한 과정으로서 향후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상층의 견인 역할 뿐만 아니라 총선투쟁공간에서 청년학생의 요구를 걸고, 학생대중들을 민주정부수립투쟁으로 추동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듯 다가오는 총선공간속에서 요구되는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교육재정확보라는 구체적인 요구사안을 통해 학생대중들을 총선투쟁으로 견인해 낼 수 있으며 그것은 즉 청년학생들의 생활적 요구가 곧바로 대중적 정치투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근본동인이라는 것은 입증해 준다.

때문에 현재 각 대학가에서는 학생대중들의 의식공유를 바탕으로 향후 장기적인 교재투 및 총선투쟁과의 올바른 결합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사회부〉

공 고

1992년도 제1학기 재학생 추가 등록금 납부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등록기간:1992년 3월 16일(월)부터
   1992년 3월 20일(금)까지
2. 등록장소: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 및
   제일은행 전국 각 지점
3. 등록금액:등록금 고지서 참조
4. 장학금 수혜학생은 장학증서와 함께 등록금 차액을 은행에 납부할것
5. 등록금 영수증은 재발행하지 않으니 소중히 보관할것

※추후등록기간은 없으며 등록기간외에는 등록금을 수납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캠퍼스 경리과(구내, 4043~3)및 용인캠퍼스 총무과(용인 구내, 4013)에 문의바람

1992년 3월 일

재 무 처 장

병무청 공고 제1호

1992년도 징병검사실시공고

1992년도 징병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징병검사 대상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992년 1월 일

병 무 청 장

1. 징병검사 대상자

○ '73년 1월 1일 ~ '73년 12월 31일 출생자(19세 대학 재학생 전원 포함)
○ '72년 이전 출생자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자
* 개인별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는 본적지 구·시·읍·면장이 수검일 20일전까지 징병검사 통지서를 송달함.

2. 병역처분 기준

○학력별로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되는 기준

학력 \ 신체등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 대상
고졸							
고퇴							
중졸							

※ 중학교 중퇴이하자는 신체가 건강해도 현역입영이 면제됩니다.
주요 신체부위별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징병검사 통지서 송달시 보내드리는 「징병 신체검사 이렇게 합니다」 안내 팜프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복무단축 또는 면제되는 사유

복무단축대상	○ 본인이 아니면 가사를 돌볼 가족이 없는 자 ○ 부가 사망한독자, 부모 60세이상인 독자, 2대이상의 독자 ○ 전사, 순직 또는 상이정도가 5급이상인 전·공상 군인의 자녀중 1인
면제대상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 2년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집행유예자 제외) ○ 고아, 귀화자 및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 징병검사 결과 현역 입영 대상자로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특례업체에 취업하여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되면 현역 입영이 면제됩니다.

4. 징병검사 연기대상

연기대상	처리절차	참고사항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지방병무청장의 출국허가에 의하여 연기	23세까지 연기
17세이전 출국자로서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자	병무청장의 국외체재기간 연장허가에 의하여 연기	국외체재기간 연장원서를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
범죄로 구속 또는 복역중에 있는 자	구속확인서, 수형인명표 또는 재소증명서에 의하여 연기	구속 또는 재감기간중 연기
징병검사 기일연기 -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징병서에 출석할 수 없는 자 -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려운 자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학기말시험, 교내 주요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한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기 어려운 자	징병검사 기일 5일전까지 본적지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연기원서를 제출	○ 제출서류 징병검사기일 연기원서 (소정양식(구·시·읍·면 교부)) 진단서(질병 또는 심신장애자의 경우) 학교장 또는 구·시·읍·면장의 사실 확인서등 관계 증명서류

5. 거주지 징병검사 출원 안내

○출원대상: 본적과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단, 본적지와 거주지 징병검사 장소가 동일한 경우는 제외
○출원기일: 늦어도 거주지 구·시·군 징병검사 개시 30일전까지(2. 11일이전 수검자는 1. 31일까지) 출원. 단, 본적지 징병검사 기일이 경과된 자는 제외
○출원서류: 거주지 징병검사원서 1부
단, 본적지 구·시·읍·면장으로 부터 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 첨부
○출원관서: 거주지의 구·시·읍·면

6. 우선 징병검사 출원 안내

○출원대상: 국외 왕래 선박선원등 국외여행을 하기 위하여 본적지 구·시·군의 징병검사기간 전에 우선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출원서류: 우선 징병검사원서 1부(소정양식)
국가기관발행 국외출국관계 수속 증명서
○출원관서: 본적지 구·시·읍·면

7. 재학생 입영연기 및 입영원 출원 안내

○19세자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전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징병검사를 받은 후 고교이상의 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한 자는 학교별 제한연령(전문대학 22세, 대학 24세, 대학원 26세)내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출원없이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졸업시까지 입영이 연기됩니다.
○재학중 입영을 원하는 자는 학적을 보유한채 본적지 또는 거주지 구·시·읍·면에 입영원을 제출하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하여 드립니다.

8.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등의 처벌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징병검사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게 된자 및 징병검사 통지서를 대리로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 아니한 자는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9. 유의사항

○현역 또는 복무기간 단축이나 면제등 병역처분은 학력, 신체정도, 연령등 병역법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되고 있으며, 그 누구의 청탁이나 임의로 처리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외관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간질, 결핵, 정신질환, 내과질환등 [illegible] 질병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저학력등 신분상 결함으로 면제되거나 불합격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남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청탁 혹은 적절한 방법으로 면제 또는 불합격된 양 청소문을 내는 경우가 있으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병역을 면제시켜 준다는 구실로 금품을 요구하는 일부 불미스러운 사람이 간혹 있다고 하니 이에 현혹되지 마시고,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으시면 이를 즉시 아래 병무신고 전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시도별 구·시·군별 검사일정(본적지)

시도	구·시·군	검사기간
서울	중구	2.11 - 3.4
	강동구	3.5 - 3.14
	강남구	3.16 - 3.25
	서초구	3.26 - 4.3
	송파구	4.4 - 4.16
	마포구	4.17 - 5.11
	종로구	5.12 - 6.10
	용산구	6.11 - 7.4
	동작구	7.6 - 7.23
	관악구	7.24 - 8.19
	영등포구	8.20 - 9.14
	구로구	9.15 - 10.5
	강서구	10.6 - 10.17
	양천구	10.19 - 10.31
	은평구	4.21 - 5.4
	성동구	5.6 - 6.1
	성북구	6.2 - 7.7
	동대문구	7.8 - 8.8
	서대문구	8.10 - 9.2
	도봉구	9.3 - 9.26
	중랑구	9.28 - 10.13
	노원구	10.14 - 10.24
부산	중구	2.11 - 2.15
	해운대구	2.17 - 2.22
	금정구	2.24 - 3.2
	사하구	3.3 - 3.10
	북구	3.11 - 3.19
	서구	3.20 - 4.1
	영도구	4.2 - 4.14
	남구	4.15 - 5.4
	동래구	5.6 - 5.23
	진구	5.26 - 6.16
	동구	6.17 - 6.29
	강서구	6.30 - 7.4
대구	중구	2.11 - 2.19
	동구	2.20 - 2.29
	서구	3.2 - 3.7
	남구	3.9 - 3.12
	북구	3.13 - 3.20
	수성구	3.21 - 3.26
	달서구	3.27 - 3.31
인천	동구	6.22 - 6.30
	남동구	7.1 - 7.4
	북구	7.6 - 7.14
	서구	7.15 - 7.16
	중구	7.18 - 7.24
	남구	8.3 - 8.12
광주	동구	7.15 - 7.22
	서구	7.23 - 8.8
	북구	8.10 - 8.18
	광산구	8.19 - 8.27
대전	중구	4.6 - 4.14
	서구	4.15 - 4.20
	동구	4.23 - 5.4
	유성구	5.6 - 5.9
	대덕구	5.11 - 5.14
경기	김포군	2.11 - 2.17
	안성군	2.18 - 2.28
	이천군	2.29 - 3.7
	광주군	3.9 - 3.12
	화성군	3.13 - 3.27
	평택군	3.28 - 4.6
	여주군	4.7 - 4.14
	강화군	4.15 - 4.22
	용인군	4.23 - 5.1
	과천시	5.2
	송탄시	5.4 - 5.7
	안산시	5.8 - 5.9
	부천남구	5.11 - 5.13
	부천중구	5.14 - 5.16
	하남시	5.18 - 5.19
	오산시	5.20 - 5.21
	군포시	5.22 - 5.23
	평택시	5.25 - 5.27
	시흥시	5.28 - 5.30
	옹진군	6.1 - 6.2
	성남중원	6.3 - 6.5
	성남분당	6.8
	성남수정	6.9 - 6.13
	광명시	6.15 - 6.18
	의왕시	6.19 - 6.20
	안양동안	8.13 - 8.14
	안양만안	8.17 - 8.20
	수원장안	8.21 - 8.27
	수원권선	8.28 - 9.3
	백령·대청	9.5
	양주군	2.11 - 2.15
	남양주군	2.17 - 2.22
	가평군	2.24 - 2.27
	미금시	2.28 - 2.29
	연천군	3.2 - 3.4
	동두천시	3.5 - 3.7
	포천군	3.9 - 3.14
	구리시	3.16 - 3.17
	양평군	3.18 - 3.25
	파주군	3.26 - 4.4
	고양시	4.6 - 4.11
	의정부시	4.13 - 4.18
강원	명주군	2.11 - 2.15
	양양군	2.17 - 2.19
	동해시	2.20 - 2.24
	태백시	2.25 - 2.27
	삼척군	2.28 - 3.5
	삼척시	3.6 - 3.7
	강릉시	3.9 - 3.12
	속초시	3.13 - 3.14
	고성군	3.16 - 3.18
	평창군	3.19 - 3.24
	정선군	3.25 - 3.30
	춘천군	4.1 - 4.3
	춘천시	4.4 - 4.9
	화천	4.10 - 4.11
	횡성	4.13 - 4.17
	원주군	4.18 - 4.23
	원주시	4.24 - 4.29
	철원군	5.1 - 5.7
	양구군	5.9 - 5.11
	인제군	5.13 - 5.14
	영월군	5.16 - 5.23
	홍천군	5.25 - 6.2
충북	진천군	2.11 - 2.15
	청원군	2.17 - 2.29
	청주시	3.2 - 3.12
	괴산군	3.13 - 3.20
	음성군	3.21 - 3.28
	중원군	3.30 - 4.7
	충주시	4.8 - 4.11
	제천시	4.13 - 4.17
	제천군	4.18 - 4.25
	단양군	4.28 - 5.4
	증평출장소	5.6 - 5.7
	보은군	5.8 - 5.15
	영동군	5.16 - 5.23
	옥천군	5.25 - 5.30
충남	공주시	2.11 - 2.12
	공주군	2.13 - 2.21
	예산군	2.22 - 3.4
	서천군	3.5 - 3.13
	청양군	3.14 - 3.20
	계룡출장소	3.21
	논산군	3.23 - 4.4
	온양시	4.21 - 4.22
	대천시	5.15 - 5.16
	태안군	5.18 - 5.26
	서산군	5.28 - 6.10
	서산시	6.11 - 6.13
	당진군	6.15 - 6.27
	홍성군	6.29 - 7.13
	천안군	7.15 - 7.24
	보령군	8.3 - 8.10
	천안시	8.11 - 8.17
	금산군	8.18 - 8.26
	연기군	8.27 - 9.4
	아산군	9.5 - 9.16
	부여군	9.17 - 9.30
전북	순창군	2.11 - 2.17
	완주군	2.18 - 2.26
	김제시	2.27 - 2.29
	전주덕진구	3.2 - 3.7
	전주완산구	3.9 - 3.16
	장수군	3.17 - 3.21
	남원군	3.23 - 3.31
	무주군	4.1 - 4.4
	정읍군	4.6 - 4.16
	임실군	4.17 - 4.24
	진안군	4.25 - 5.1
	이리시	5.2 - 5.8
	군산시	5.9 - 5.15
	김제군	5.16 - 5.27
	남원시	5.28 - 5.29
	고창군	5.30 - 6.11
	정주시	6.12 - 6.15
	익산군	6.16 - 6.25
	옥구군	6.26 - 7.3
	부안군	7.4 - 7.11
전남	장성군	2.11 - 2.19
	담양군	2.20 - 2.28
	곡성군	2.29 - 3.7
	구례군	3.9 - 3.12
	광양군	3.13 - 3.18
	동광양시	3.19
	보성군	3.20 - 3.30
	순천시	3.31 - 4.3
	승주군	4.4 - 4.15
	화순군	4.16 - 4.25
	장흥군	4.27 - 5.6
	강진군	5.7 - 5.14
	해남군	5.15 - 5.28
	영암군	5.29 - 6.8
	나주군	6.9 - 6.20
	나주시	6.22 - 6.23
	함평	6.24 - 7.2
	영광	7.3 - 7.14
	무안군	8.28 - 9.7
	신안군	9.8 - 9.22
	목포시	9.23 - 9.30
	여천시	7.15 - 7.18
	여수시	7.20 - 8.4
	여천군	8.5 - 8.14
	고흥군	8.17 - 9.3
	완도군	9.5 - 9.21
	진도군	9.23 - 9.30
경북	달성군	4.1 - 4.9
	고령군	4.10 - 4.16
	성주군	4.17 - 4.25
	칠곡군	4.27 - 5.4
	김천시	5.6 - 5.8
	금릉군	5.9 - 5.20
	선산군	5.21 - 5.28
	구미시	5.29 - 6.1
	군위군	6.2 - 6.9
	의성군	6.10 - 6.25
	안동시	6.26 - 6.29
	안동군	6.30 - 7.15
	청도군	7.16 - 7.24
	상주시	8.3 - 8.5
	상주군	8.6 - 8.21
	경산시	8.22 - 8.24
	경산군	8.25 - 9.1
	포항시	9.2 - 9.7
	영일군	9.8 - 9.25
	영천시	9.26 - 9.28
	영천군	9.29 - 10.12
	경주시	10.13 - 10.17
	경주군	10.19 - 10.31
	점촌시	6.2 - 6.3
	문경군	6.4 - 6.15
	예천군	6.17 - 7.1
	영주시	7.3 - 7.7
	영풍군	7.9 - 7.21
	울릉군	7.23
	봉화군	8.3 - 8.13
	청송군	8.17 - 8.24
	영양군	8.26 - 9.1
	영덕군	9.3 - 9.17
	울진군	9.19 - 9.30
경남	창원군	2.11 - 2.18
	창녕군	2.19 - 2.29
	함안군	3.2 - 3.10
	진해시	3.11 - 3.16
	삼천포시	3.17 - 3.20
	고성군	3.21 - 3.30
	사천군	3.31 - 4.6
	충무시	4.7 - 4.9
	의령군	4.10 - 4.17
	합천군	4.20 - 5.2
	거창군	5.4 - 5.15
	산청군	5.18 - 5.23
	함양군	5.25 - 5.30
	진주시	6.1 - 6.8
	진양군	6.9 - 6.19
	남해군	6.22 - 7.3
	통영군	7.6 - 7.13
	거제군	7.15 - 7.23
	장승포시	7.24
	하동군	8.3 - 8.12
	마산합포	8.13 - 8.21
	마산회원	8.22 - 8.25
	창원시	8.26 - 8.31
	양산군	9.1 - 9.9
	울산중구	9.14 - 9.17
	울산남구	9.18 - 9.22
	울산동구	9.23 - 9.24
	울산군	9.25 - 10.7
	밀양군	10.8 - 10.19
	밀양시	10.20 - 10.21
	김해군	10.22 - 10.28
	김해시	10.29 - 10.31
제주	서귀포시	7.13 - 7.18
	남제주군	7.19 - 8.4
	북제주군	8.5 - 8.19
	제주시	8.20 - 8.29

병무실명이나 병무부조리 신고는 ☎

서울	720-4055	부산	803-3920
대구	252-8011	수원	5-0040
광주	273-3912	대전	253-4901
춘천	54-7011	청주	4-2141
전주	83-9222	제주	52-3910
창원	803-3918	의정부	43-3912
강릉	43-3910		

※ 서울북부지역 8개구청(도봉, 성동, 성북, 동대문, 서대문, 은평, 노원, 중랑구)에 본적이 있는 사람은 의정부 병무지청 검사장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대수술이 시급한 우리문화 〈첫번째〉

머릿속까지 파고든 외래문화

패스트푸드 체인점이나 피자전문점, 편의점등은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최근엔 노래방이나 룩까페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일본·서구문화, 개인주의 가속화
정책적 대응·대체문화창출 시급

갈 데까지 간 식민의 문화

몇년만에 고국을 찾은 한 재일교포가 서울의 풍경을 보고 『동경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소녀들의 차림새와 머리모양을 보니 여기가 마치 동경같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불과 1·2년 전으로 기억된다. 이 말이 일본인의 차림새가 한국인을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것이다.

그런데 이젠 더 큰일이 났다.

일본에서 미국에서 저 멀리 유럽에서 건너온 문화가 우리 대중문화로 당당히 자리잡고 있고, 그 문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그자체가 되어버렸다는 무서운 사실이다.

종로나 신촌거리를 한번 거닐어 보자. 눈만 돌리면 나타나는 패스트푸드체인점이나 커피전문체인점, 피자전문점, 편의점등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풍경이 아니다. 그 유리벽 안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표정없이 햄버거를 먹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별로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작년부터 새롭게 눈에 띄기 시작한 이색 풍경으로 노래방, 로바다야키, 룩(Rock)까페등이 부지런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본교 서울캠퍼스 주변도 예외는 아니다. 교문을 나서면 양쪽으로 보이는 것이 편의점과 노래방이다. 물론 이 노래방도 밤새 불을 밝힐 만큼 찾는 사람이 많다. 점점 생겨나는 것은 노래방이나 룩까페등의 이국색 짙은 업소들이고, 많은 학생들이 이 곳에서 새로운 문화를 즐기려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요즘들어 무섭게 번져지고 있는 이러한 외래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악영향을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외래문화가 대중들의 생활 가까이에 자리잡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석2조(?)의 룩까페

문을 채 열기도 전에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귀청을 멍하게 만드는 곳이 있다. 한쪽에선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선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다. 술을 마시다 흥이 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흔들어댄다. 디스코텍처럼 춤을 추는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술을 마시고 차를 마시는 그 자리가 곧 무대가 된다. 이것이 이른바 룩까페다.

비디오룩까페라는 곳도 있다. 대여섯대의 대형 비디오에선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나와 열광적인 몸짓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고 모두 거기에 도취되어 화면에만 집중한다. 까페 뿐만 아니라 생맥주집도 이러한 곳이 들어가고 있다.

인기절정의 노래방

작년부터 생기기 시작한 노래방은 현재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노래방은 일본에서 유행하는 영상무인반주시스템(속칭 비디오캐)을 칸막이방에 설치해 두고 화면을 보면서 반주에 맞춰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다.

젊은층에서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노래방을 찾는 사람들은 다양하며 술을 팔지 않기때문에 미성년자의 출입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24시간 영업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노래방이 일단 들어가면 차례를 기다려야 한 정도로 항상 붐빈다.

『처음엔 지나가다가 호기심으로 들어가 보게 되지만 그 독특한 분위기때문에 다시 찾게 된다』는 것이 노래방을 즐겨찾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며, 『남을 의식하지 않고 맘껏 즐길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술도 이젠 일본식술집에서

주로 강남지역에 많이 자리잡고 있는 로바다야키는 일본식 술집이다. 일식집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보다 더 왜색을 짙게 띠고 있는 곳이 로바다야키다. 우선은 무척 깨끗하다는 점이다. 보통의 우리나라 술집이 별로 말쑥한 인상을 풍기지 못하는데 비해 로바다야키는 깔끔하고 깨끗한 인상으로 사람들을 끈다. 벽에 걸린 일본 민화에서 부터 자그마한 술잔·안주등에 이르기까지 왜색이 가득하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단지 새롭고 신나고 재미있다고 해서 마냥 찾아 들어도 될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외국에 와있는 듯한 이국적인 느낌과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대중들은 현실에 대한 고민이 마비된 채 퇴폐·향락적인 저질문화에 빠져든다.

또한 노래방은 자동판매기영업처가만 받으면 누구나 업소를 차릴 수 있고, 아무런 법적 제약도 받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탈선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지만 계속 늘어나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3~4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놀이문화는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부추길 가능성도 높다.

모두가 하나되어 단결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이 때에 개인주의·이기주의의 만연은 민족생존에 있어 적이 되는 것이다. 차츰차츰 그 속에 물들고 일본인처럼, 미국인처럼 변해가는 대중의식은 또 어찌해야 하는가.

식민의 문화를 몰고온 무분별한 정책

8·15이후 줄곧 우리사회를 지배해 온 일본문화와 미국문화는 반세기동안 줄기차게 대중의식까지 변화시켜 놓았다. 게다가 작년에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게된 외래문화는 더이상 비판이 존재하지 않을 만큼 보편화되었다.

편하고 깨끗한 것을 원하는 현대인들의 취향을 공격해 들어온 갖가지 체인점이 국내 유통업계에 큰 타격을 주면서 성장·발전해 가고 있다. 「편하다」는 이유로 마냥 찾고 있는 편의점이 생겨난 이후 그 주변 구멍가게에서 입는 막대한 피해를 보면 유통시장개방이 국내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또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민족자립경제를 위협하게 하고 민족문화가 설 땅을 잃어가게 하는 외래문화를 더 이상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선 안될 것이다. 이대로 계속 외래문화가 유입되고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몇년 뒤 온 나라가 동경거리·뉴욕거리처럼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것이다. 그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여기고 받아들일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깊이있고 체계적인 고민과 대체문화의 창출이 시급하다. 잃어버린 민족정신과 민족문화를 되찾기 위한 대수술이 필요한 때이다. 하나되어 함께하는 우리 민족문화만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점철된 병든 이 땅을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황효순 기자〉

우리말의 쓰임새 (207) 지·줄

·사탕을 저만 먹었지 남을 줄 지를 몰랐습니다.
·나의 고정관념이 나쁜 줄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대학생의 글인데 앞의 「지」와 뒤의 「줄」은 모두 잘못 쓴 것이다.

불완전이름씨 「줄」은 풀이씨 밑에 붙어 어떤 방법이나 셈속을 나타내는 말이고, 「지」는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풀이씨의 씨끝으로 「나쁜지」, 「좋은지」처럼 붙여 쓴다. 각각 「줄 줄을」 「나쁜지는」으로 써야 옳다.

이번 달 「우리말의 쓰임새」는 서울캠퍼스 동아리 「우리말연구회」에서 쓰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영화 「닫힌 교문을 열며」 시사회 취재

강제당한 무성영화

우리나라 어딘가에서 지금 이 시간에 「무성영화」가 상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21세기가 몇해 남지 않은, 영화제작기술 또한 고도로 발달된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옛날 얘기쯤으로 생각할 것이다.

애써 옛추억을 되살리려는 것도 아니었는데, 타의에 의해 제작을 방해받고 영상극을 관객들에게 선보일 수밖에 없었던 웃지못할 일이 있었다. 지난 2월25일(화)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있었던 영화 「닫힌 교문을 열며」(이하 「닫힌…」)의 시사회가 바로 그것이다.

「장산곶매」에서 만들고 있던 16mm소형영화 「닫힌…」은 문화부의 방해로 지난 2월초 제작이 중단되었다. 촬영과 편집, 음악작업이 끝나고 녹음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제작에 방해를 받아 영화가 완성되지 못한 것이다. 이 날 시사회에서는 워크프린트(녹음이 되지 않은 필름)을 영사하고 그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이 직접 그 자리에 나와 영상에 맞춰 대사를 하고, 효과나 음악도 즉석에서 들려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장산곶매」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영화 「파업전야」를 이야기하면 누구나 쉽게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파업전야」는 16mm소형영화로 한국영화운동에 있어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상영당시엔 핼기까지 동원되어 경부의 탄압을 받았던 영화다. 장산곶매에서 「오! 꿈의 나라」 「파업전야」에 이어 이번에 만든 영화 「닫힌…」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그 속에서 고통받는 학생들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진지한 노력이 그려진 영화다.

몇해전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 전디다 못해 자살한 한 여고생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져 많은 호응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영화는 그러한 상황을 빚어낸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데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단편적인 상황전달에 그친 아쉬움이 있었다. 영화 「닫힌…」역시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발전된 면이 있다면 그러한 교육의 문제점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보다 폭넓은 시야가 주어졌다는 점이고, 그 모순에 대항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그려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영화는 교육현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과장되지 않은 우리의 교육현실이었으며, 그러한 현실에 무감각해져 있을 가성세대나 직접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가슴 찡한 감동과 깨달음을 줄만한 내용이었다.

1시간 30분 남짓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던 배우들의 대사와 음악·효과가 영상과 조화를 이뤄 아쉬운대로 영상극은 마무리 되었다.

영화는 대량복사를 전제로 대중에게 선전되는 것을 그 생명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은 영화에 「산업」이라는 말이 붙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영화운동을 지원·발전시켜야 할 문화부가 앞장서서 젊은 영화인들의 영화운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로 입증된 것이다.

시사회를 마치고 난 뒤 이 영화를 앞으로 전국을 돌며 영상극으로라도 상영하겠다는 장산곶매의 굳은 결의를 들으며 탄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젊은 영화인들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문화부〉

「장산곶매」 기·자·회·견

"이 영화를 참주인인 학생들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영화촬영과 편집을 마치고 계약된 녹음실과 현상소에서 후반작업을 하려 했으나 이미 문화부에서 현상소와 녹음실에 작업을 거부하도록 지시를 한 상태였습니다』

「장산곶매」대표 강현씨는 지난 2월25일(화) 영화 「닫힌 교문을 열며」의 시사회가 끝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작중지의 경위를 이렇게 밝혔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녹음을 하려했으나 이미 다른 녹음실에도 작업거부를 지시하고 만약 우리가 녹음을 의뢰하면 문화부에 신고하라는 연락까지 취해 놓았더군요』

전화 한통화로 영화제작을 일방적으로 방해한다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도 가지지 못한 문화부의 횡포라는 것이 장산곶매측의 의견이다.

영화 「파업전야」를 제작·상영하고 영화법 제4조(신고)와 제12조(심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기소된 이용배씨와 김명곤씨에 대한 재판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영태 변호사는 『영화법 4조의 영화제작시 「신고」 조항은 영화제작을 본업으로 하는 상업영화제작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16mm소형영화는 실험영화로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화부에서 지원하는 16mm영화제작단체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며, 12조의 심의부분역시 마찬가지로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하는 것은 헌법질서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실상 검열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영화법이 제작중지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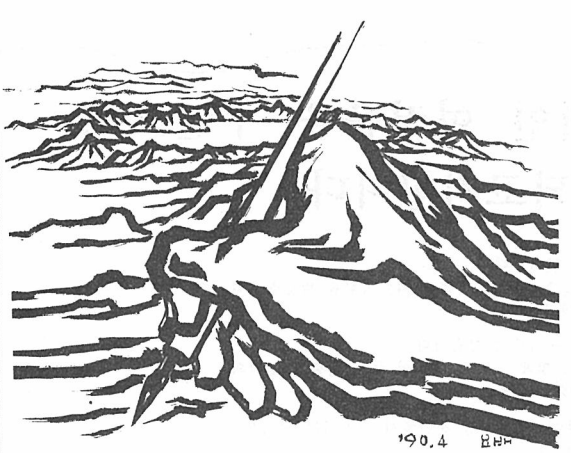
『이 영화의 참주인인 학생들과 교사·학부모들에게 이 영화를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제작중지 명령의 철회무생을 계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전국을 돌며 영상극으로나마 이 영화를 상영할 개획입니다』라며 강현씨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 한다.

불합리한 악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애써 제작한 필름을 압수하며 제작자를 구속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영화의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좋은 영화는 결코 수억원의 제작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얼마만큼 현실 속에 뿌리내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실된 삶을 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영화를 제작하고자 노력하는 영화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파업전야」나 「어머니, 당신의 아들」과 같은 영화가 자유롭게 상영되고, 채 완성되지 못한 영화 「닫힌 교문을 열며」가 녹음을 마치고 대중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 위해서는 이런 영화현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이 또한 필요하다.

〈문화부〉

세상에 빛이 있다면 내가 그 빛이리라



외대학보 수습기자 모집

응시자격:92학번 새내기
모집부문:일반기자, 사진기자, 만화기자
원서접수기간:3월17일(화)까지
교부및 원서접수장소:학생회관 2층 학생기자실
시험일정 및 방법:3월17일(화) 1차모임
3월 18일(수) 면접
3월19일(목) 2차모임, 토론

서울FBS·수습국원 모집

응시자격:92학번 새내기
원서접수기간:3월 9일~3월 18일
모집부문:제작부(PD) 보도부(Rep) 아나운서부(Ann) 기술부(Eng)
원서접수기간:3월 2일~3월 16일까지
원서접수장소:시청각건물 3층 방송국
시험일정 및 방법:1차 필기시험, 가면접-3월 17일
1차 합격자 발표-3월 18일
본면접-3월 19일

교지편집위원회 수습위원모집

응시자격:92학번 새내기
원서접수기간:3월 9일~3월 18일
원서접수장소:학생회관 2층(서울)
학생회관 3층(용인) 교지편집위원회실
전형방법:1차 필기시험, 2차 면접
시험일정:3월 18일부터 20일사이 예정

The Argus 수습기자 모집

응시자격:92학번 새내기
원서접수기간:3월 2일~3월 17일
원서접수장소:학생회관 2층 학생기자실
시험일정 및 방법:1차 필기시험(글짓기, 상식, 영어)-3월 18일
2차 면접:3월 19일
합격자 발표-3월20일

용인 FBS 수습국원 모집

응시자격:92학번 새내기
모집부문:제작부(PD) 보도부(Rep) 아나운서부(Ann) 기술부(Eng)
원서접수기간:2월 24일~3월 18일
원서접수장소:어문관 2층 방송국
전형방법:1차 필기, 2차 면접 및 적성검사

외 대 학 보

그림 돋보기-개정된 학칙에 대한 외대인의 견해도 조사

92년 1학기가 시작되었다. 학외적으로도 총선, 대선으로 한바탕의 돌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학내적으로는 작년 2학기 개정된 학칙이 경과규정을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기인 것이다. 외대를 운영하는 원칙이며 기본방향이 되는 학칙임에도 우리는 6·3투쟁이후 학원의 안정화라는 구실로 전행된 논의 속에서 나온 결과물임을 지켜보았기에 다소 긴장될 수 밖에 없다.

학칙의 개정과정과 내용을 외대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공고가 이루어져 학칙을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본보에서는 총 다섯개의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학칙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번 학기부터 변경적용될 학칙규정 중에 F·W학점 처리에 관하여 「F·W과목은 평점계산에서 제외하고 재수강에 관계없이 재학중에 삭제한다」는 기존의 항을 「학칙부와 성적표에 모두 F·W학점을 기재하고 평점산정에도 포함하되,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한 경우 학칙부에 옮겨 적을때 F·W학점을 삭제한다」고 바꾸었다.

87년 대학자율화 조치 이후 학원민주화의 과정에서 삭제된 학업성적 평가에 따른 제적조항이 「연속 2개 학기 평점 평균이 1.75미만이인 자, 평점 평균이 1.0이하 3회인 자, 2.0이하 4회인 자」인데 비추어 금번 학기에 바뀐 학칙규정과 함께 시행될때 평점계산의 기준은 상대적으로 높아져 「1.5미만 3회, 2.0미만 4회」는 옛 학칙의 부활이기보다는 87년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학사제적조항이라 보여진다.

설문 첫번째 문항에서는 이러한 개정된 학칙의 내용이 이번 학기부터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물어보았다. 91년 2학기는 공고기간으로 두고 경과규정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칙적용 사실을 모르고 있는 학우가 13.46%로 나타났다. 그리고 알게된 경로도 공식매체나 공고를 통해서가 아닌 친구나 선배에게 전해들은 경우가 74%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 공고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적용이라 지적된다.

개정 학칙의 내용에 관해서는 「기본 학력 상승을 위하여 필요한 조항」(19.23%)이기보다는 「학생회 등 학생활동 규제에 악용될 수 있어 비민주적인 학칙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68.26%로 나타났고 성별비교를 해보았을 때 여학우(60.00%)보다는 남학우(86.15%)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성적향상의 목적보다는 학생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성적불량 징계조항은 철폐되어야 마땅하다는 이러한 인식은 87년 개정때 학칙개정소위원회에서 이미 인정되어 조항삭제의 이유가 된바 있다.

학칙개정의 과정에서는 교수대표 3인, 학생대표3인, 기획·교무·학생과장과 기획조정처장으로 학칙개정소위원회를 구성했던 전례를 무시한 것은 학생들에게 큰 반감을 가져왔다.(93.26%) 더우기 개정논의가 진행된 「전체교수회」라는 것이 조교수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총장이나 보직교수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평교수들의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에 과정상의 학생참여는 더욱 절실하다. 예년의 경우 학칙개정을 논의하기전에 안건을 전외대인에게 대대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것에 비추어보아도 학칙 제26조2항의 개정은 과정에 있어서도 큰 오점을 남긴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변경된 학칙규정의 한 예로 수강신청시의 분반에 대한 규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행정업무의 전산처리등 그 효율성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하는 응답자는 9.61%로 나타났고,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학의 특성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76.9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학당국이 임의로 설정하여 적용하는 규정이 대학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특성에 위배되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근로장학금 지급에서의 「학점 제한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서는 75%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그 내용을 부정하고 19.23%가 「학점은 생활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고 답하였다. 장학금 급여규정에서 「교내 특정 부서에 배치되어 노력을 제공하는 근로학생 및 학생회운영에 공로가 있는 자」로 명시되어있는 자격에 학점 제한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현재 제시된 평점1.5라는 기준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불필요한 조항이다. 또 설문 두번째 문항과 관련하여 학생회 활동에 대한 규제로 악용될 여지가 다분한 것이다.

이상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난 학칙에 대한 인식들을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술하였다. 학칙은 대학사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외대인 하나하나에게 적용·실현되기에 그 의미는 매우 크다. 학교당국은 학칙과 그 밖의 규정에 대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그 내용을 공고해야하고, 학생들은 개정된 학칙에 대하여 각자 개인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에서 학칙을 전정한 학원의 주인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세우도록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충미 기자〉

설문조사 결과

질문1 F·W학점을 평점계산에 합산하여 「1.5미만 3회나, 2.0미만 4회인자 제적」을 내용으로 개정된 학칙 제26조 2항이 이번 학기부터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이스 정보를 통해)
알고 있다(대자보:6명 신문:10명, 친구나 선배:51명, 기타:2명):90명(86.53%) 모른다:14명(13.46%)

질문2 개정된 「학업성적에 따른 제적조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회등 학생활동 규제에 악용될 수 있어 비민주적인 학칙이다:71명(68.26%)
기본 학력 상승을 위하여 필요한 조항이다:20명(19.23%)
잘모르겠다:11명(10.57%) 기타:2명(1.92%)

질문3 87년 학칙개정의 경우 교수·학생간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에 비해 91년 학사제적제도에 대한 개정은 「전체교수회」에서 논의하고 학생의 의견은 배제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개정과정상 학생참여를 배제한 일은 학원민주화의 관점에서 잘못된 것이다:97명(93.26%)
학칙은 학생활동 규제면이 강하므로 교수회의에서 논의됨이 바람직하다:0명(0%)
잘 모르겠다:7명(6.73%)

질문4 이번 학기부터 시행될 학칙규정의 한 예로 수강신청시에 「일부특정반으로의 집중을 피하기 위해 시간표에 지정한 반으로의 강제분반」을 실시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강의실 배정이나 그 밖의 행정업무의 효율을 위해 필요하다:10명(9.61%)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해야하는 대학에 맞지 않는 조처이다:80명(76.92%)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봐야 알 것다:12명(11.53%)
기타:2명(1.92%)

질문5 근로장학금의 지급 대상은 「가정사정이 빈곤한 학생이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내 특정부서에서 배치되어 노력을 제공하는 근로학생 및 학생회 운영에 공로가 있는 학생」입니다. 장학금 지급규정에서 평점1.5미만 학생은 근로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로장학금의 혜수성으로 학점이 주된 자격이 될 수 없으므로 학점제한은 필요가 없다:78명(75.00%)
학점은 학생 생활의 평가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20명(19.23%)
잘 모르겠다:6명(5.76%)
설문조사 대상: 본교생 2,3,4학년 1백4명
조사 장소, 일시: 서울 캠퍼스, 2월28일(금)

이용미글 인생씨앗 고르기

모 경 화
〈동양학대 아랍어과 86학번 청년 영화제작소, 민요연구회 회원〉

따스한 봄날의 햇살속에 대학의 교정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생 후배들에게 글을 쓰려니 가슴이 두근거리는군요. 누구에게나 대학생활의 신입생 시절은 첫사랑의 감정이 가슴속에 간직되듯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것 같아요. 다시 보고싶은 영화의 한장면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에겐 젊은날의 방황의 기억일수도 있고 또 다른이에겐 즐겁고 값진 순간이 되기도 하지만, 청년시절은 일생에 단한번 시나브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아쉽게 흘러가는 기회라고 생각되요. 사회에 나온지 몇년 안되었지만 파릇파릇한 우리 후배들에게 이글이 사회생활에 찌든 선배의 진부한 충고담이 되지나 않을지 걱정이군요. 그러나 조금 먼저 대학생활을 꾸려나간 이 선배의 이야기가 새내기 여러분들의 건강한 대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해요.

대학이란 곳에 처음 들어올땐 누구나 희망에 부풀어 있기 마련이죠.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대학입시 위주이다보니 대학은 인생의 목표였고 성공의 지름길이라 생각되기도 하겠지만 막상 대학이란 곳은 삶의 한 과정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는 곳일수도 혹은 가장 냉혹한 현실세계 이기도 하지요. 취업준비에 얼을 올리는 학우가 있는가 하면, 주위의 불의를 깨뜨리고자 역사를 바로 세우는 변혁의 몸부림에 고민하는 학우가 있는곳, 그러기에 신입생들에게는 벅차기도 한 대학의 모습이지요. 신입생 후배들에게 가장 먼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대학생활을 찾으라고 하고 싶어요. 부딪치는 슬잔속에 동료의 아픔을 나누기도 하고 자신의 세계와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이 살아갈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나가기 바래요. 농촌활동도 좋은 경험이 될수도 있겠지요. 그중에 제경험에 비추어 동아리 활동을 꼭 권하고 싶어요. 입시제도의 모순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직성과는 상관없이 점수에 맞춰 진학하다보니, 많은 친구들이 전공에 흥미를 잃거나 학교자체도 싫어져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아리는 우리에게 제2의 전공을 선택할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나 역시 한학기를 어떤 고민인지도 모를 고민속에 지내다 들어가게된 동아리가 「가면극 연구회」 탈패였는데 이 선택은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꿔놓게 되었죠. 아랍어를 전공해서 교수나 돼볼까하는 생각을 가졌던 입학 초기의 희망사항은 동아리 속에서 찾아낸 나의 또다른 모습으로 삶의 방향에 전환을 가져왔고 지금의 나를 만들기까지 이어졌죠.

서양문화에 젖어있던 내가 우리의 뿌리를 탈춤의 장단속에서 온몸으로 부대끼면서 찾아보게 되었고 따뜻한 사람들과의 거리낌 없는 만남은 진정한 사랑을 알게 했지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나의 꿈을 대학시절의 동아리 활동을 발판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기위해 노력할수 있게 되었죠. 요즈음 새로이 시작한 영화운동을 하면서 더욱 절실히 느끼는 것은 내가 그당시 주어진 전공에 얽매여, 내가 하고자 하는바를 하기보다 남들처럼 평탄하고 일반적인 화이트 칼라가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때의 관단이 옳았다는 생각이에요. 조금은 어렵더라도 자신이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꼭 시도해보고 필때까지 매달리는 인내를 가지길 바래요. 대학은 여러분에게 많은 선택의 여지를 주지만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는 자기 자신에게 맡겨줄 뿐이지요. 지금이라도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든가 다시 좀 더나은것을 찾는 후배가 있다면 제일 먼저 가장 가까운 외대의 가능성속에서 자신이 찾을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통해 찾기 바래요. 시간이 흐르고나면 누구나 그때 왜 열심히 하지못했나 하고 후회하지만 다들 당장의 순간부터 노력할 생각은 하지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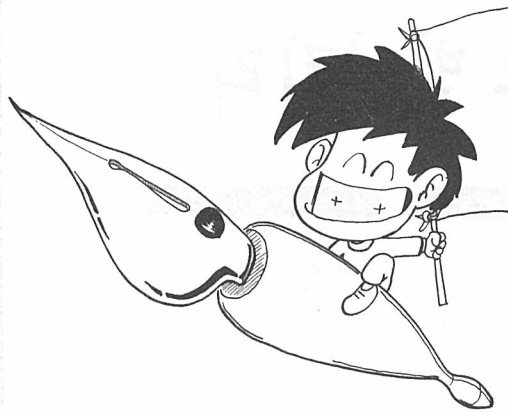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새내기에게 드리는 글

제2기 모니터요원 모집

민족자주언론의 외대학보가 호된 매질과 엄한 눈초리를 가진 제2기 모니터요원을 모집합니다.

학보기자와 독자대중과의 연결고리로서 더많은 학우들의 참여를 북돋우는 모니터요원은 정기적 모임과 토론을 통하여 올바른 대학언론의 위상을 세우고 학보 한면한면의 엄격한 평가로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학보에 반영하며, 비둘기 기자(준기자)로서 아이템제공, 공동취재, 기사작성들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사학생기자실로 문의바랍니다. 외대학보사 기자실은 서울·용인 각 캠퍼스 학생회관 2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연락처는 서울)961－4152, 용인)30－4112입니다.



참 언론의 펜대를 굽히지 않고…

1만 3천 외대인 여러분을 주인으로 세우는 신문이 되고자합니다。

대학부—기존의 취재부와 기획부가 합쳐집니다.
대학내의 모든 사건과 동정을 분석하고 해설하는 역할을 맡겠습니다.
·3면에 실던 「하수도」는 폐지됩니다.

사회부—사회부가 학술부가 하나의 부서로 운영됩니다.
당면 시기와 정세의 변화에 맞게 시사적 성격의 글과 학술적 성격의 글을 유동적으로 엮어나가겠습니다.

여론부—「징검다리」가 신설되었습니다. 대학생활 전반에서 제기되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국보법 철폐 투쟁의 현황과 전망

존폐위기 맞은 국가보안법

국가 보안법은 현정권을 비롯한 역대정권의 권력유지의 첨병 역할뿐 아니라 남북대화의 중요 장애물로 작용되었다.

법 철폐 및 양심수석방

민자당일당독재분쇄와 민중기본권쟁취국민연

지난 2월14일(금) 서울 향린교회에서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등 15개 제야·정당·종교단체들이 참여한 「국보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 준비위원회」(이하 범투본) 결성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범투본 공동의장을 맡은 지선스님은 『오늘 우리의 투쟁은 법률하나를 개폐하자는 투쟁이 아니라 통일된 민족의 주인으로써 함께 나서는 투쟁이며 우리는 이 투쟁의 광장에서 이땅의 모든 양심있는 세력과 함께할것을 약속드립니다』라며 이번 범투본 출범의 의의를 밝혔다.

택을 계기로 더이상 국보법이 존립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는 측면에서 이전과는 달리 국민대중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향후 범투본의 투쟁이 주목되고 있다.

「범투본」 선전국 간사 강도수씨는 『국보법의 규정 자체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그동안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되어온 화운동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악용되어왔다. 그것은 측현정권을 비롯한 역대정권의 안정적인 권력유지의 첨병 역할뿐만아니라 남북대화의 중요 장애물로 작용되었다.

그동안 국보법에 대한 정부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기존의 핵심적인 사항은 그대로 두었으며, 범원에서의 관결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는 국보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통과된 뒤에도 여전히 전체 시국사범 구속자의 47%(92년현재)가 국보법 위반사범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노정권의 민주화 의지를 의심하게 할뿐만 아니라 고문·밀실수사, 그리고 기본권을 유린하는 국보법 등의 제반 악법이 계속되는한 「인권선진국에 올라섰다」, 「남북한에는 정치범이 한사람도 없다」는 노태우정권의 선전은 기만일 뿐이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범투본」의 한 관계자는 『국보법 철폐운동이 범국민적인 운동이 되도록 기능한 모든 투쟁으로 현시기 국보법 철폐의 의의와 필연성을 적극 선전해내고 노정권의 통일정책의 허구성을 국민대중에게 폭로해나갈 것입니다』라며 『이를 위해 기도회, 서명운동, 헌법소원운동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가오는 제14대 총선속에서 이러한 국보법철폐투쟁을 광범위하게 대중적으로 조직화하고, 모든 부문운동과의 연대투쟁을 통해 전체 민족민주운동세력의 결집과 이를 통한 국보법철폐투쟁을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류상준 기자〉

광범위한 대중화와 조직화를 통해 통일투쟁으로 발전해야

남북 합의서 채택에 따른 국보법 철폐투쟁 활발

공선협의 출범과 그 현황

시민들이 앞장서 올바른 주권행사를…

지난 1월 25일 (토) 「시민단체」, 「여성,종교단체」, 「노동자·농민단체」등 총 57개의 각 계급·계층별 시민운동조직이 모여 「공명선거 실천을 통하여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목적아래 「공명선거 실천 시민협의회」(이하 공선협)을 출범시켰다. 『이번에 출범하게 된 「공선협」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이 사회의 정치권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주의에 빠져있는 중산층을 끝임없이 조직화해내고 행동화해 낼수 있는 시민운동차원의 총선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공선협」 사무차장 장신규씨는 말한다.

「공선협」은 그 출범이 가지는 의의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권·관권선거 방지와 타락선거 방지 캠페인, 유권자의 주권행사인 투표참여 및 정치의식향상운동, 불법선거 감시와 고발등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주도해 「제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대한상의군인회」등 극우 관변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정부주도의 「공명선거 실천 민주단체연합」(이하 공민련)이 지난 1월 23일(목) 결성되었는데, 이는 소속 회원의 상당수가 민자당원인 점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그 결성의 뒷배경을 짐작케 하고 있다.

또한 「공선협」의 활동경비를 위해 받아들이고 있는 후원금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여 강력히 금지시킨 반면 「공민련」의 활동을 위한 경비지원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지원하는 실정이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박병윤 조직부장은 『이미 완전한 민간주도인 「공선협」이 결성되어 있는 지금 정부주도의 관변단체를 동원한 「공민련」을 만든 것은 「공민련」을 범 여권 조직의 일환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된다』라고 말한다.

공선협은 이번 선거에서 민자당 거창지구당 공천자인 이강두씨가 지구당 개편대회때 참석자들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구속되는등 과열·혼탁선거의 양상이 잇달아 속출하자 지난 1월 12일(일)부터 「선거부정 고발 창구」를 운용 각종 불법선거 운동사례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 확인·조사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그중에서 중거와 중인이 확보된 명백한 불법사례 13건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한 바 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발표 이후 시·도지사, 군수·구청장의 과다한 충성경쟁으로 인해 관권선거가 되살아날 것에 대비해 관권개입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공명선거 캠페인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투표참여와 금품·향응거부, 부정선거 고발, 가정용과 차량용 스티커 부착을 통한 대대적인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한편 현행 선거법 상황하에서는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할 경우 그 일시와 장소를 공표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있어 당원단합대회의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맹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악점의 극복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거법 개정 투쟁의 일환으로 헌법소원등의 활동도 벌이고 있다.

그 밖에도 공선협은 이러한 공명선거 실천운동이 단지 선거때만 반짝하다 사라져버리곤 하는 일회성 운동의 극복과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하에 범국민운동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의 조직화에도 힘쓰고 있으며, 금융실명제의 실시등과 같은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공약사업으로 내걸 것등, 바람직한 후보자 선택기준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공명선거 로고송의 대중적 보급, 공명선거 캠페인을 위한 언론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정언론을 위해 감시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홍보해야할 것중의 하나가 지난 광역의회 선거에서도 보여졌듯이 유권자들의 저조한 투표율, 특히 젊은 층의 정치권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주의는 그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기치고 있으므로 이번 만큼은 국민 기본권리인 주권행사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할 것이다』라고 「공선협」의 한 관계자는 말한다.

「공선협」은 이러한 광범위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어려운 과제들을 지니고 있는데, 첫째는 이번 14대 총선에서 국민의 올바른 투표권행사를 위한 시민운동 차원에서 어떻게 조직화, 행동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둘째는 소위 이 사회의 중산층이라 일컬어지는 계층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정치의식화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무제제기는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으나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공선협」 출범을 계기로 하여 선거때 한철 반짝하는 한시적인 조직이 아닌 끊임없이 이들 문제점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를 사이의 강한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공선협」 활동 경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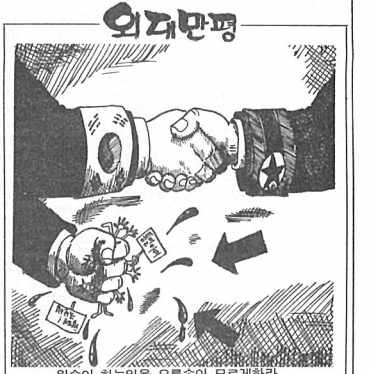
△1991년 1월30일: 공명선거 캠페인을 위한 민간사회단체 1차 간담회
△ 〃 2월25일: 지방의회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 〃 4월 2일: 기 초의회 평가 및 과제에 대한 공선협 정책협의회
△ 〃 4월22일: 지방의회 선거법개정 촉구대회
△ 〃 6월15일: 공명선거 실천 시민대회
△ 〃 6월 3일: 「공선협」,공동대표 기자회견 및 선거부정 고발창구 개설
△1992년 1월 9일:1차 대표자회의—55개단체 참여의사 발럼
△ 〃 1월24일: 서울 「공선협」 선거부정 고발창구 개소식
△ 〃 1월 25일:1992년 「공선협」 출범식 및 서울 「공선협」 결성식

「공선협」, 선거부정사례 고발 등 시민운동 본격화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해 국민의 조직화·행동화가 과제

이번 14대 총선은 지난 13대 국회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평가라는 점과 노태우정권 4년 집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공선협」을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 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건전한 선거풍토의 정착과 올바른 주권행사 운동이 범국민적 여론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권동순 기자〉



쇠창살 안으로 봄소식을 전합시다!

〈이문〉

6·3관련 구속자

송파구 가락2동 162번지 성동구치소

정원택(경제·805번)
백경선(경제·842번)
김의연(서반아어·843번)
홍용희(일본어·844번)

영등포구 고척동 영등포 교도소

박광렬(영어·974번) 최원일(법·1249번)
이용규(목교·81번) 김응규(신방·997번)
공승관(법·1728번) 전갑기(경영·574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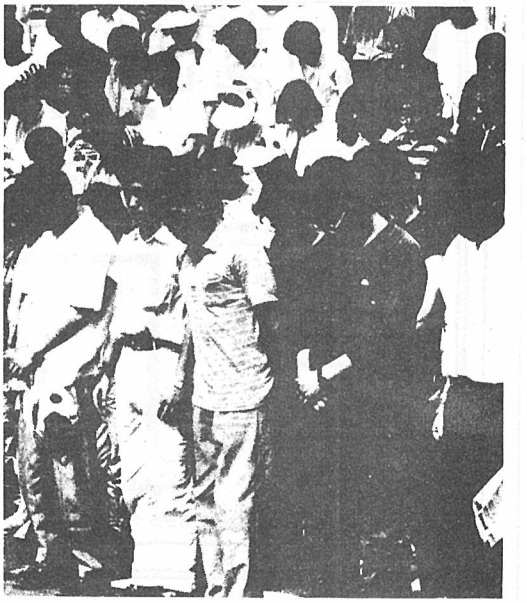
기타구속자

최원극(영어·5015번) 경기도 안양시 호계3동 458번지 안양교도소
신효식(무역·3960번)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36번지 대전교도소
정 현(독어)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전주교도소
황이민(영어) 전남 무안군 일로읍 목포교도소
김동규(무역) 상동
임찬수(정외) 경남 진양군 대공면 진주교도소

〈왕산〉

임수경(불어·12번) 충북 청주시 미평동 148번지 청주교도소
이영록(아프리카어·356번)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수원교도소
양준흥(경제·1818번)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36번지 대전교도소
윤원석(경제·140번)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1828번지
이우철(태국어) 전남 목포시 목포교도소

구속된 학우들에게 편지를 보냅시다



학안대의 첨병 되살아난 구학칙

심층분석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학사경고·제적재
「대 교육부 투쟁」위한 대중의견 수렴이 관건

작년 6·3정총리 항의시위를 계기로 전국 대학에 불어닥친 「학원안정화대책」의 시행이 개강과 함께 적용되는 학칙개정을 통해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

본교의 경우 작년 6월14일(금) 총장주재 교무위원회를 통해 「학사경고·제적제도」의 시행여부 논의로 부터 시작, △학생회 간부의 자격기준 강화 △장학금 지급기준의 강화 △자판기 운영권 회수 △학생회비 운영권 자율화 방지 △외부단체의 학내시설, 장소 불법사용 불허 △학내 언론기관의 편집권 회수 등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9월25일(수) 교과과정심의위원회에서 결의사항으로 △재수강 신청관계 △F·W학점 처리기준 △정원외 편입생 학점 인정 △유고(준유고)처리관계에 대해 시행규정 및 시기를 결정했다.

또한 작년 6월26일(수) 장학금 지급에 있어 각 단과대에 장학금 지급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과 단과 대학별로 교내 장학금에 대한 기본방침 및 장학생을 심의하여 지급액 등을 결정함을 개정하고 8월5일(월) 장학위원회를 소집하여 장학금 지급규정을 강화, 91학년도 2학기 부터 적용,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당국에서 정한 각 단과대 분리수강신청 교과목 중 다른 단과 소속 학생이 타 단과대 수강을 못하도록 전산처리 과정에서 강제분반하며 분반된 교과목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상대평가제를 적용, 이를 9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시행한다고 이전규정을 개정했다.

본교의 경우 1974년에 학칙이 개정된 이후 18차례 개정, 시행이 됐지만 아직도 현행학칙에도 모호한 단서들이 남아있으며 6·3이후로는 개악 또는 구학칙으로의 복권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학칙개정을 보더라도 87년 대학자율화 조치 이후 사회전반적인 민주화 분위기를 타고 행해진 학칙개정 중 학사경고·제적제도가 시국관련 학생들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악용돼 있고 또한 일시적으로 수업을 소홀히 한 학생들에게 재수강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비교육적 이라고 지적돼 폐지됨에 따라 본교에서도 「학원성적평가에 따른 제적조항」(제26조 2항)을 삭제됐으나 6·3을 계기로 다시 삽입되어 구학칙으로의 복귀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렇듯 학생들의 학생권(올바른 환경과 여건속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학습할 권리)을 반영하지 않은 통보식의 비민주적 개정, 학생들을 대상화하여 수용자 측면만으로 보는 관료적 개정은 지양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학칙개정 부분에 있어 △학생의 기본권리가 인정받도록 하고 △개정후 민주적 요구들을 상시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층단위로 부터 요구안(도서구입, 시간강사·조교채용, 장학금 지급 등)을 작성하여 이를 결집해 내야 한다.

부산 동아대의 경우 대학발전을 위해 총학생회와 총장 및 주요 보직교수 협의체인 「교학심의회」, 교수협의회의 의결기구인 「교수평의회」등이 모여 학내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삼자협의회」를 구성, 합의사항을 도출해 내고 있다. 하지만 이 기구도 삼자의 지위와 위상에 맞는 결정권과 집행력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재는 학내의 정책결정과 집행결정을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조사활동을 벌이며 이것을 3자 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의결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삼자위원회」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동아대의 경우처럼 협의체 기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측에서 기층 학과로 부터의 민주적 요구안을 내오고 이를 통해 힘을 결집, 학과에서 단대로 그리고 대학 행정당국에 강력히 요구했었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본교는 타대학에 있는 3주체의 대표기구들은 모두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학내의 주요결정은 대학당국에서 「교무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심의하고 이러한 것이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논의된 후 최종 결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학칙개정에 있어서도 대학당국은 이미 결정하고 학생측에 통보 형태만을 했을 뿐 학칙개정에 대한 이렇다 할 논의를 가진 바 없다.

이제 개강을 맞아 92학년도 1학기는 시작됐지만 학생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학칙을 적용받아야 한다. 양캠퍼스 총학생회에서는 3월 초부터 등록금 문제를 기반으로 「교육재정확보투쟁」을 벌여 나갈 방침이며 이의 실행을 위해 개강초 부터 학원자주화를 위한 전반적인 기층요구안을 작성, 이를 근거로 대학당국과의 구체적인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또한 이와 함께 「대 교육부 투쟁」을 통하여 학원의 인사들을 분열시키는 교육부의 행정을 규탄하고 교육법으로 대학 자율화와 불간섭을 규정토록 적극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90년 개정 당시 교수임면권에 대해 전권이 재단이사장으로 옮겨지고 교수징계심의권은 교육부로 이전됨에 따라 대학의 3주체를 교육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개악해 놓았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비록 교수·학생·대학당국자들이 민주적으로 학칙을 개정한다고 해도 교육부의 승인 없이는 공허한 개정이 되고 마는 것이다.

92년 을 한해는 학원자주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대중에 충실한 투쟁이 요구된다. 대중에 충실하고 학내문제에 절실한 요구사항이 도출됐을 때에 만이 대교육부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환 기자〉

개정 부분	개정 이전	개정 이후	시행 시기
재수강 신청	재수강 취득과목에 대해서는 수강하기에 관계없이 최초 취득한 학기로 성적이 이기	①재수강 성적을 최초 취득한 학기로 이동하는 사항 폐지 ②B^+이상 성적 취득교과목 재수강 불허 ③재수강 교과목 상한 성적은 B^+초과 불허	92학년도 제1학기부터
F.W학점 처리	F.W학점은 학적부에 기재하지 않고 평점 산정에도 제외하되, 성적 발송용 및 교학과 보관용은 기재	①평점 산정에 포함하여 입력관리, 학적부 이기 F.W학점 삭제후 평점 산정제외	91학년도 2학기부터
		②모든 성적표에 F.W기재하고 평점산정에 포함, 재수강으로 성적취득시 학적이기때 삭제	92학년도 1학기부터
하위 성적평가에 따른 제적	87년이후 삭제	①하위성적 평점평균 1.5미만으로 학점 제한조치 3회 받은자(다음학기 수강신청시 2학점 제한) ②성적 평점평균 2.00미만으로 학사경고를 4회 받은자	92학년도 1학기부터
근로 장학생 선발 (장학금 제13조)	가정 사정이 빈곤한 학생으로 하위성적이 우수하며, 교내 특정부서에서 근로하는 학생 및 학생회운영에 공로가 있는 학생	①평점 1.5미만 학생은 근로장학금 신청 불허 ②부별지도학생은 학생처장이 총장에 건의하여 지급한다.	91학년도 2학기부터

'92학년도 전·후기 입시결과 분석

평균점 상승 대학발전으로 유지된다

본교는 지난 12월17일(화)과 2월10일(월) 치뤄진 92학년도 대입학력고사 전·후기 입시에서 각각 4.1대1과 3.9대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전·후기에서 각각 31.3점, 36.35점의 평균점 향상을 보였다.

세부사항 분석 중 성별현황을 살펴보면 합격자 중 전기에는 67.1%(1천1백1명), 후기에는 67.3%(1천1백4명)가 남학생 이었고, 여학생은 32.9%(5백39명), 32.7%(5백3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학생이 전·후기 2천19명, 지방 거주학생이 직할시 4백81명, 그외 지방은 7백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캠퍼스 학력고사 성적분포도를 분석해 보면 서울캠퍼스의 경우 서양어대는 영어과가 전기 평균 295.8점, 후기 평균 318.2점으로 집계돼 작년에 비해 전·후기 각각 15점에서 40점까지 대폭 향상됐다. 동양어대는 일본어과가 전·후기 평균 289점, 306.4점으로 집계되어 작년 평균에 비해 37점, 35.3점이 각각 향상 됐다. 이 외의 8개 학과도 서양어대와 비슷한 수준의 평균성적 향상을 보였으나, 특히 중국어과와 일본어과는 고득점자들이 많아 학과의 인기도를 반영했다. 정책과학대는 신문방송학과가 전·후기 각각 284.6점, 301.8점을 나타내어 작년도에 비해 35점 가량 향상됐고, 상경대는 경영학과가 전·후기 284.5점, 303.6점으로 작년보다 무려 37점이 향상됐다. 사범대는 영어교육학과가 전·후기 287.9점, 308.3점으로 집계 됐다. 사범계열의 경우 작년도 전·후기 분할 모집 때에는 평균성적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올해 입시에서는 후기분할모집에 290점대의 수험생이 대거 지원하여 큰 폭의 평균향상을 가져왔다.

용인캠퍼스의 경우는 후기입시에서 서울캠퍼스 모집정원 1천7백30명중 80%(1천3백84명)가 3백점 이상의 고득점을 획득, 2지망으로 용인캠퍼스에 합격하는 수가 여느때와 달리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인해 전기전형 때 각 단대 모두 평균 250점대 이상을 보였고 후기전형에는 단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작년에 비해 대체적으로 평균10점이 향상됐다. 특히 전·후기에 걸쳐 안정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 예년의 경우 후기전형이 전기 때보다 평균20점 가량 높은 추세를 보여 왔으나 올해는 엇비슷한 성적분포를 보였다.

서울	경쟁율		평균점증감		용인	경쟁율		평균점증감	
	전기	후기	전기	후기		전기	후기	전기	후기
서양어대	3.44	3.45	▲47.79	▲30.06	인문대	7.28	5.70	▲27.17	▲36.97
동양어대	3.75	3.95	▲33.80	▲38.39	서양학대	3.90	3.49	▲28.03	▲31.33
정책과학대	3.99	4.72	▲32.07	▲35.50	동양학대	5.10	3.63	▲26.07	▲30.24
법과대	4.77	5.54	▲32.60	▲36.70	사회과학대	2.50	4.76	▲19.77	▲43.17
상경대	3.66	3.80	▲34.80	▲34.50	자연과학대	7.88	4.75	▲28.30	▲42.43
사범대	2.15	3.95	▲33.90	▲40.58	총계	4.10	3.90	▲31.30	▲36.35

각 단대별로는 서양학대의 영어과가 전·후기 평균 268.4점, 278.8점을 보였으며, 동양학대는 일본어과가 264.8점·277.6점, 사회과학대 경영정보학과는 256.5점·283.2점으로 집계돼 서울캠퍼스 인기학과와 비슷한 추세로 수험생들이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자연대의 경우는 전자계산학과가 각각 256.3점, 271.9점을 나타냈으며 전체적으로 다른 단과대학 보다 후기입시 때 30점에서 56점까지 큰폭으로 평균점이 향상됐다.

한편 본교와 같은 중·상위권 대학 중 한양대는 후기전형에서 서울캠퍼스 합격자 6백45명 전원이 3백점 이상 고득점을 얻었고 3백점 이상 탈락자는 3백91명에 이르렀으며, 경희대와 시립대는 40~50%가 고득점을 얻었다.

새 대입제도는 지난 2월12일(수) 교육부장관 정책자문기구인 「대학교육심의회」에서 전체회의를 통해 대학별 본고사 과목수 조정문제를 논의, 3과목(도구과목) 이내로 제한 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내신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으로 선발할 경우 모집정원의 일부를 전기에 앞서 특별전형하여 뽑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8일(화) 전국 각 교육대학은 고교내신성적(40%)과 수학능력 평가(50%)시험, 면접(5%)·적성시험만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것 임을 밝혀, 본교처럼 단대로 사범계열이 있는 경우 다른 단대와의 분리전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94년 대입제도 변경에 따라 전·후기 분할 모집하던 대학들이 올해 들어 전기입시를 통해 모든 정원을 충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동국대의 경우 전기입시만을 치뤄 92학년도 입시를 모두 끝내는가 하면, 한양대의 경우도 일부 단대별로는 전기입시만을 치루기도 했다. 이러한 전형방법은 그동안 후기전형을 통해 우수 신입생을 유치한다는 것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데에 따른 변경으로 올 입시에는 전기전형만을 치룸으로써 중·상위권 학생들을 상당수 유치 시킬 수 있었다는데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본교의 경우는 앞으로의 우수신입생 유치 방안으로 대학당국에서 「중·장기발전계획안」 중 학과신설 부분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으나 91년 입시 때 자연대 통계학과를 증설한 이후 신설 추진 중이던 인문대 인류사회학과, 해양무역학과, 동양학대의 버어마어과 등의 계획안이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올 입시도 제자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예년에 비해 상당수의 고득점자와 학과 평균의 신장만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93년 입시에는 평균점 상향에 의해 지원자 수가 적어진다는 면에서 상당부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현재 교육환경(건설, 복지)과 교육여건(교과과정개편)등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가운데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해 기존 학원 모습만을 홍보·선전할 경우 상당부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바로 학내 구성원의 요구를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본교의 행정구조를 개편하고, 이를 통하여 「2천년 미래를 짊어질 중흥외대」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우수신입생 유치의 바른길이 될 것이다. 〈대학부〉

자주언론의 약속

크로니클

○…새봄의 시작은 강남갔던 제비가 물고 오지만, 이문벌·왕산골 새학기의 시작은 새내기의 힘찬 발걸음에서 오는 듯.

한 해의 결실은 새해의 시작에 있듯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온 작년은 올해의 힘찬 모습에서 찾을 수 있을 터.

지난 학기 많이 선보이지 못했던 크로니클자(者), 「자주언론」의 한 길에 꿋꿋이 서있는 모습 보여드릴 것을 약속하오.

○…소 팔고 논 팔아도 일곱자리를 채우지 못해 부모님의 얼굴엔 근심만이 가득하다는데.

사연인즉 재단 금고가 빈약한 관계로 등록금만을 두자리수로 대폭 인상하여 학교를 경영해보겠다는 의도로 등록금을 일방고지했기 때문이라고.

흡산들을 돈줄로 여기는 학교 나리님들! 진짜 돈줄인 대원빌딩의 이익금을 재단전입금으로 돌려야 할터.

○…「속 빈 강정」들 의 화려한 무도회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데.

지난 2월 18일(화) 7천만 겨레의 바램속에서 남·북한의 상호체제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는 채택되었건만 금세기 최고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국보법의 철옹성과 함께라면 죽음마저도 감미롭다는 나랏님들, 민중의 철퇴로 그 철옹성이 붕괴될것을 각인하시압.

○… 돈 이 날아든다/왠갖 봉투가 날아든다/예금에는 국민통장/지급에는 민자카드/… 총 선 을 앞두고 돈타령이 유행이라는데.

지난 2월 28일 국민당 서울 마포을 지구당 창당대회 직후 운동원들이 주최측으로부터 통장을 건네받는가 하면, 「돈당」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

돈당본색! 민초들의 분노로 뿌린만큼 확실히 거덜날 것임을 아시압.

○…최근 이문벌에 「노래방」이라는 난데없는 요물이 나타나 흡산들을 유혹해대고 있다는데.

그 요물 정체를 알아본즉, 고향은 일본이요 집은 왜색 차림새에 내부몸체는 밀실로 구성돼 개인적·이기적인 「왜식문화중독증」을 유발하여 한국에 와서 제나라에 돈 받치려는 애국자(?)임이 분명.

그 요물한테 눈이 멀어 자주 드나들다 돈 주고 세월 주고 민족정신까지 빼앗길까 두렵소.

왜색문화

비둘기칠판

이문벌

■빈민활동 갑시다

3월8일(일)에 하루빈활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정과대 정외과로 문의하세요.

〈빈활준비 모임반〉

■야학교사 모집

당신이 지니고 있는 사랑을 함께할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정:중학교
- 장소:노원역(5분거리)
- 연락처:932-9301~2
  939-9333(오후7시 이후)

〈한울야학〉

왕산골

■새내기 여러분

먼저 새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자랑찬 조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아보지 않으시렵니까?
따뜻한 모임의 장소가 항상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달려 오십시오.

〈민족사연구회〉

■총학생회 간부모집

92년의 외대를 힘차게 이끌어갈 젊은이를 찾습니다.
총무부, 기획부, 선전부, 학원자주화 소위원회, 연대사업부 각 부서에서 차장으로 활동할 90, 91학번 학우를 각 부서 2명씩 모집합니다.

〈제13대 일대도약 총학생회〉

■92년 1학기 대생협 부직생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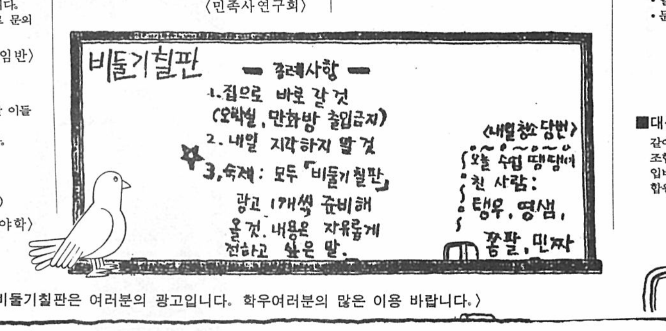
- 자격:왕산의 모든 학우
- 모집인원:○○명
- 일할곳:자동판매기, 매점, 식당
- 구비서류:재산세(과세, 미과세)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성적증명서(새내기제외) 자기 소개서, 과회장 추천서
- 접수기간:92년 3월3일~3월10일
- 일시작:3월11일부터
- 문의 및 접수:대생협 사무실(어문관 202호)
  —구내전화 4153

〈대학생활협동조합〉

■대생협 조합원 모집

같이 일할 주인을 찾습니다.
조합원 가입신청서와 출자금 2000원, 가입비 500원, 증명사진 2매를 내시고 조합원증을 받으시면 조합원이 됩니다.

〈대학생활협동조합〉



동문회

(이문)

경희
- 때:3월6일(금) 늦은5시
- 곳:중국관
- 안건:신입생환영회

강릉여
- 때:3월6일(금) 늦은 5시
- 곳:학생회관 앞 상징탑

(왕산)

성보
- 때:3월6일(금)늦은 5시 30분
- 곳:학생회관 식당
- 안건:신입생 환영회

〈비둘기칠판은 여러분의 광고입니다. 학우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광고신청:서울—본사기자실(학생회관203호)
용인—본사기자실(학생회관212호)

총선앞둔 민민운 진영 움직임 본격화

남북청년학생 공동결의로 합의서 이행 촉구

총선 통해 민주정부 수립할 것을 결의

지난 2월 22일(토) 한양대에서 전국연합주최 「범국민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지난 2월22일(토)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이하 서총련) 소속 1천여명의 학생들과 전교조, 전민련, 전빈련, 민중당, 민중회의, 민정추 등 11개 제야단체와 13개 지역운동단체 소속 5백여명은 전무경찰 82개중대 1만2천여명의 검문과 삼엄한 경비 속에서 한양대 학생회관 앞에서 오후2시 「청년학생결의대회」와 오후4시 「범국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총련이 주최한 「청년학생결의대회」에서는 남북합의서 체택에 따른 팀스피리트훈련 철폐와 국가보안법 철폐 및 모든 양심수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주장했으며, 이날 전대협과 북측 조선학생위원회는 동시에 남북합의서 이행 쟁취와 팀스피리트 훈련 완전 철폐를 위한 「남북청년학생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전대협 임시의장인 태제준(서울대 총학생회장)군이 낭독한 공동결의문에서 남북청년학생들은 △남북합의서에 따라 정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남북청년학생의 단결된 힘으로 이를 실천하며 △팀스피리트 훈련 완전철폐와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한미군 전면철수 △국가보안법 철폐와 통일인사 석방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할 것등을 결의했다.

이어서 전행된 전국연합 집회에서는 총선에 중점을 맞춰,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총선대책과 현 김진당의 낙선투쟁 및 단일한 조직대오로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서울지역 민족민주학생운동연합」은 민중의 힘으로 민중후보를 선출, 이들의 광범위한 진출을 통해 보수야당과의 「민주연립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연합 가맹단체인 민중진영 단일정당 추진위원회(민정추—추진위원장 김철수)는 23일(일) 오후2시 동국대에서 결성식을 갖고 민중진영의 단일정당을 통한 총선투쟁을 촉구했다.

본교생, 방중빈활 실시

지난 1월 24일(토)부터 29일(목)까지 5박6일간 서울캠퍼스 「빈민활동 준비모임반」 주최로 본교생 17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시빈민활동(이하 빈민활동)이 실시됐다.

이번 빈민활동은 동부지구총학생회연합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본교를 비롯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동부지역 소속 6개교가 결집, 동대문구 청량리지역 13개 지구에서 실시됐다.

빈민활동이후 자체평가속에서 빈민활동 준비위원장인 김현수(정과·정외3)군은 이번 빈민활동 성과에 대해 『객관적인 사회구조 모순속에서 진보성과 보수성 양면을 지닌 현실속의 민중을 보게됐다』며 『일은 힘들었지만 그곳 주민들로부터 많은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9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개최

지난 2월 27일(목) 연수원앞 소광장에서 91년 전기 학위수여식이 거행됐다.

「91년 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월27일(목) 오전11시 연수원앞 소광장에서 이강혁 총장, 이숙경 재단이사장을 비롯한 내외인사, 가족친지 1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부수석졸업생인 김민석(법과대 법학과 88)군을 포함 학부학사 2천8백71명, 일반대학원석사 1백46명, 부역대학원석사 48명, 통역대학원석사 42명, 교육대학원석사 36명, 경영정보대학원 석사 62명등 총 학사 2천8백71명, 석사 3백34명, 박사 11명이 학위수여를 받았다.

이날 이강혁 총장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설립으로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음 할 외대의 기능은 더 높아져가고 있다』며 『사회로 진출한 외대인들이 교육만은 지성인으로서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직원동정

◎허인교수, 「이탈리아사」출간

용인도서관장인 이탈리아어과 허인교수는 이탈리아사(대한교과서)를 출간했다.

◎이상준교수, 「나는 스승이요~」출간

언어연구소 소장인 영어과 이상준교수는 지난1월15일(수) 삶의 교훈을 담은 시집 「나는 나자신의 스승이요. 나는 나자신의 제자이다」를 출간했다.

◎이선우교수, 한국생성문법회 부회장 파선

영어과 이선우교수는 지난해 12월27일(금) 열린 한국생성문법연구회총회에서 부회장에 피선됐다.

◎이희준, 박창희교수, 도서관에 도서기증

무역학과 이희준교수는 지난 2월18일(화) 용인도서관에 개인소장도서 1천5백권을 기증했다.

또한 사학과 박창희교수는 2월21일 「전시외국인 강제연행 관계 사료집」 8책을 기증했다.

용인, 노천극장 4월완공

위치문제로 늦어져

학생측과의 위치문제로 9월에서 10월말로 착공이 연기됐던 용인캠퍼스 노천극장 공사가 현재 50%의 공사 진척도를 보이는 가운데 오는 4월말 완공될 예정이다.

노천극장의 설립 위치가 학생과의 논의 속에서 숭차장 앞 공터로 결정됐었으나, 캠퍼스 구조상 명수당 앞 야외무대가 더 적합하다는 대학당국의 제안이 거론되자 위치이동문제가 발생돼 완공일이 3월에서 다소 늦어진 것이다.

결국 명수당 앞 야외무대에 설립되는 노천극장은 지하방이 있는 서울캠퍼스 노천극장과는 달리 방송기구보관실만이 지하방으로 배치돼 있으며, 중앙오픈무대 중심으로 2천5백여명~3백여명의 좌석이 비치되고 계단단면은 미관상 잔디로 이룬다.

교수협의회 회장 우덕룡 교수 선출

본교 교수협의회는 회장으로 재임하던 이상준(영어과)교수가 교무부위원으로 임명됨에 따라 지난 2월1일(토) 부회장 이은순(사학과)교수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해 오던 중 20일(목) 총회를 열어 우덕룡(서반아어과)교수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주요 보직교수 인사 이동

지난 1일자로 11명에게 인사발령

학교측은 지난 2월1일(토)자로 일부 보직교수의 인사발령을 시행했다. 새로 발령된 보직교수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 부총장 겸 대학원장 안병만(행정학과)교수. △용인캠퍼스 부총장 겸 국제교육원 원장 이창복(독일어과)교수 △용인캠퍼스 교무처장 강홍주(노어과)교수 △서울캠퍼스 총무처장 송윤염(독일어과)교수 △용인캠퍼스 총무처장 양승윤(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교수 △기획조정처장 김윤행(경제학과)교수 △통역대학원장 김영조(영어교육과)교수 △서양어대학장 서정철(불어과)교수 △동양어대학장 김기태(베트남어과)교수 △정책과학대학장 성활용(정치외교학과)교수 △법과대학장 박원석(법학과)교수 △사범대학장 이상준(영어과)교수 △동양학대학장 조희원(중국어과)교수 △사회과학대학장 남용택(무역학과)교수.

〈안병만 교수〉

〈이창복 교수〉

전대기련, 총회·출범식 가져

30일 집회통해 대중신문 창출 결의

지난 1월29일(수) 서울지역 대학신문 기자연합(이하 서대기련)소속 학생기자 1백여명은 동국대 소강당에서 「제4기 서대기련 총회 및 출범식」을 갖고 방중 분과학교 개최에 대한 보고 및 4기 서대기련 사업평가와 5기 회장선출에 대한 인준절차를 가졌다.

다음날인 30일(목)에는 전국대학신문 기자연합(이하 전대기련)소속 학생기자 5백여명이 경북산업대 소강당에서 열린 「제9기 전대기련 총회 및 10기 해오름식」을 통해 9기 사업평가와 10기 주요사업과제 설정 및 10기 회장선출에 대한 인준과정을 가졌다.

29일 열린 서대기련 집회에서는 4기사업평가로 각사의 운영체계 도입과 분과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연대사업 부분에서 한국원씨 속보제작, 촌지관련 민언협 심포지움 참가 등의 모범사례 발표를 가졌으며 5기 회장으로 박지광(건대신문사 편집장)군을 인준했다.

30일 열린 전대기련 집회에서는 각 지역별 8개 기련 회장들의 소개와 함께 대학신문의 반전에 기여한 애국기자 안문환(중앙대신문사 전 사회부장)군과 애국신문사(숭실대신문사)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10기 전대기련의장으로 인준된 김덕수(전남대신문사 편집국장)군은 인사말을 통해 『총선·대선을 맞아 전대기련에 대한 대학당국과 정권의 탄압이 본격화 되고 있다』며 『단위사 강화를 통한 전대기련 총단결로 이러한 시기를 극복하고 대중에 충실한 신문을 창출하자』고 말했다.

이사람

『이란을 보다 명확하게 바로볼 수 있는 돋보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국내 최초로 한글—페르시아어 사전을 발간하게된 김정위교수를 만나〉

『국가간 사전의 발간은 한국과 이란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며 이란을 보다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돋보기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89년 9월부터 한글—페르시아어 사전 발간 작업에 착수하여 이제 마지막 인쇄만을 남겨놓고 있는 김정위(이란어과)교수의 말이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본교에 이란어과가 창설된지 17년만에 처음으로 한글판 페르시아어 사전을 발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교수가 이번에 발간할 예정인 이 사전은 약 5만5천단어를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Abbas Aryanpu—Koshan:의 영어판 사전을 기초로 하여 이란어과 학생 20여명과 김교수가 함께 번역하는 것을 시작으로 4년 이상에 걸쳐 제작된 것이다.

『처음 사전 발간을 위해 번역작업에 들어갔을때는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문으로 첨가한 것 중에서 이란의 속담을 직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우리나라의 속담을 덧붙여야 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라며 『그후에도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단어에 대한 발음기호는 영어로 표기하고 뜻은 국어로 되어있는데 영어와 국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만 페르시아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기 때문에 컴퓨터로 함께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복사해 학생들과 함께 일일이 오려붙이며 작업을 해야했습니다』라고 제작당시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성공리에 작업이 끝나고 인쇄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전은 그 나라의 사회, 역사, 문화등을 집약한 것으로 이하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랍어과, 터어키어과, 태국어과 등을 비롯한 많은 특수언어학과에서는 한글판 사전이 없이 영어등 외국어로 된 사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 이번 한글판 페르시아어 사전 발간을 계기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재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전공교과목 교수진 확보와 국내 실정에 맞는 사전과 전공서적의 보강을 위해 대학당국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더욱 많은 투자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럴때만이 어학교육의 전달인 본교가 올바른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전의 빠른 발간을 기다리며 학생들에게 김교수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사전은 결코 어떤 한 개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사전을 토대로 계속적인 발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이 스스로 보충시켜 나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인숙 본보 편집장〉

이제 다시 한번
등록금 투쟁 승리의
꽃을 피우기 위한
힘찬 도약의 큰 걸음을 내딛읍시다

1차 등록연기투쟁에 60%이상의 학우들이 동참했습니다.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학생측 요구안

· 재단전입금 확충—51억원

· 학생등록금—4.8% 인상

· 외대인의 단결된 힘으로 국고보조금 확충

〈애국외대 이문·왕산 총학생회〉

수필

뭐가 보이는가?

—신입생 수련회를 다녀와서

뭐가 보이는가? 배산임수의 명당, 왕산이 보인다. 그 유명하다는 왕산 바람과 아직 녹지 않은 눈과 얼음. 그러나 우리를 반겨주는 춘향(春香)이가 물씬한 곳.

신입생 수련회는 한마디로 새내기들의 자기 표현의 마당이었다. 내성적인 성격탓에 소심하고 소극적이기만 했던 내가 다른 학우들의 눈치 안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래도 부르고 앞장도 서고…. 모두들 그동안 무엇인가에 갇혀있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그 틀을 벗어나 조금이나마 자신의 내면 세계에 잠재해 온 무한한 자기력량의 가능성을 화려한 빛으로 발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선배·누나들이 모두 당황할 정도로.

민족, 민주, 민중, 자주, 통일, 투쟁…. 낯설고 왠지 저만치에 있는 것으로만 느껴졌던 단어들, 뭐가 잘났다고 월북을 하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임수경선배를 비난했던 일, 아직 어린 생각에서 지녀왔던 편견과 선입견들이 여러 선배·동료들과 함께한 호흡과 토론의 시간속에서 반성의 모가지를 떨구었을 때 나 또한 숙연한 자세로 성부른 속단과 오해를 반성할 수 있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자신은 절대로 불안해서는 안된다는 농담을 하시던 정국(영어과)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들들의 깔막하지만 삐었는 말씀들, 목이터지게 외쳐대는 구호와 노래,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자세,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한 열정과 전술함으로 가득한 선배님들의 모습에서 「세계속의 외대인」이란 말이 결코 자만으로부터 나온 허장성세가 아님도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남·여학생이 함께 술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게임도 하고, 게임하다 틀리면 이불 뒤집어 쓰고 얼어맞기도 하고…, 고교때 수학여행가서 모범생이랍시고 뒤에서 짐간을 떨면서, 밤새워 술마시고 노래하며 떠드는 모습을 지질학생이나 하는 비행이라고 비웃었던 나의 옷지 못할 과거도 이런 준비학교가 아니었다면, 아니 있더라도 만일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난 여전히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속빈 강정이었으리라.

또 한가지 내가 얻은 것이 있다면 준비학교를 통해서 선배·동료들의 입을 통해 수없이 얘기되었던 주체성의 문제다. 그 주체성이 저마다의 마음속에 튼튼하게 자리잡게 되다면 대학이란 곳은 얼마든지 개개인의 주장과 행동이 용인되고 시험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사회」라는 윤리책과 사회책으로만 길들여졌던 까까머리 고교생이 「도둑질이라도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는 대학생이 되리한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대견스럽기조차 하다. 앞으로 남은 삶에 비하면 너무 빠른 감격이겠지만.

짧은 시간을 함께 생활하면서 후배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고 설사 후배의 기분이 좀 나쁠지라도 거침없이 단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던 선배님, 선배보다 오히려 후배대하기가 어렵다며 겸손의 미덕을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던 선배님, 단지 몇 분을 위해 수개월간 연습한 공연으로 가슴 뭉클함과 코끝의 찡함을 주시고, 지칠줄 모르는 열성으로 슬픈 영화에서나 느낄 수 있던 눈시울을 뜨거운 감동을 주신 고맙고 또 고마운 여러 선배님들, 꺼리낌이 없지는 않지만 모두 깊이 정붙이고픈 마치 오래전부터 「한솥밥식구」처럼 지내온 것같은 훈훈하다 못해 푸근한 이 느낌.

비록 2박3일의 짧은 수련기간이었지만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마치 2년3개월의 성숙이 한 순간에 이루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앞으로 4년간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그리 짧지만은 않은 긴 여정이 될 것 같다.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바라고 바라던 일의 성취가 됐던, 꿈에 그리던 그녀가 됐건간에. 물론 여러 선배님들이 얘기했던 수많은 고민들과 이해없이 비판만 가했던 화염병의 참의미도 고민해 봐야지.

물론 내가 선배가 되었을 때는 내 후배에게도 내가 느꼈던 이러한 감동을 그들의 가슴마다에 심어주고 싶다.

아, 가슴벅찬 설레임과 충만한 깨달음의 시간으로 무르익었던 순간들.

「그 순간이 참하 꿈앤들 잊힐리야!」

한 완 희
〈서학·영어1〉

깨어짐이 시작될 때

서평

이강혼의 장편서사시집 「그해 봄날의 푸른빛 플랭카드」를 읽고

희색빛이 지루한 겨울이 계속되는가 싶었다. 하지만, 또 다시 우리의 교정은 새내기들의 맑은 눈망울과 조심스런 발걸음, 그리고 그들을 맞는 선배들의 기쁨이 담긴 색색의 플랭카드로 봄을 맞고 있다.

이제 곧 온갖 나무들이 연두빛 잎을 희우고, 미네르바를 에워싼 개나리가 노오란 꽃을 피울 것이다. 그렇다. 바로 그 땀때를 배경으로 이 서사시는 시작된다.

우리들의 새내기 경주가 무너지는 대학의 환상과 들뜬 기분 뒤에 따르는 허전함으로 갈피를 못잡고 헤매이다 「투쟁은 즐겁습니다」라고 씌여진 푸른빛 플랭카드를 보게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꼬리를 물고 생겨나는 의문들로 인해 마침내는 그 플랭카드를 쓴 중호를 찾게 된다. 중호를 만난 후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참된 삶과 앞으로 자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한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와 전비준책을 통해 점차 조국의 역사에 눈을 뜨고, 경주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결국 경주는 더 넓은 사랑, 진정한 삶을 위한 실천의 장으로 첫걸음을 내딛게 되고, 그들의 순박한 사랑도 시작된다.

이 서사시의 내용은 대강 위와 같다.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시의 소도구들도 바로 눈앞에 보이는 플랭카드와 이제 곧 우리의 코와 눈을 자극할 최루탄, 친숙한 학회실 등 우리들 생활주변에 있는 것들이다. 대학생활을 처음 접하게 될 때의 설레임과 그 뒤를 따르는 허전함과 쓸쓸함, 또 여기저기서 밀려오는 낯선 가치들로 인한 혼돈….. 이는 누구나 대학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다. 이렇듯 낯설지 않은 소재와 꿈이지지 않고 이어지는 사건과 감정의 연속성으로 이 서사시는 참으로 쉽게 읽혀진다. 또한 시어들이 약간의 이색함을 느끼게 할 정도로 곱고, 시어의 배열은 눈으로 읽을 때 뿐만 아니라 소리내어 읊기에도 적당하게 되어 있다. 내용과 형식이 작가의 세심한 정성으로 빛나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

시의 내용을 보면 여러 부분에서 올바른 생활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작게는 학회실을 남몰래 청소하는 모습에서부터 생활터전에 대한 사랑, 벗에 대한 사랑, 더 크게는 조국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다. 그리고, 작은 절문에 대한 정성스런 대답과 학우들에게 쏟는 깊은 사랑,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해내는 학생회 간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이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천으로 옮기기까지는 참으로 힘이 든다. 이러한 지적은 새내기들에게는 대학생활을 위한 마음가짐에 도움을 줄테고, 선배들에게는 흐트러진 몸가짐을 되돌아보게 해주리라.

하지만 아무리 좋은 책이더라도 아쉬움은 남게 마련이다. 이 서사시의 성과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지적한다면 경주의 깨달음이 중호와의 대화와 책한권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과 중호와 경주의 사랑이 시작되는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하나의 작품이 빈틈없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며, 위의 지적은 숲을 보지 못하고 하나의 나무를 탓하는 격이 될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감정의 변화나 행동의 발전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마련했다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여하튼 짧게나마 작품의 내용, 시어와 구성의 적절함, 교훈성 그리고 뒤에 느껴진 아쉬움을 이야기하였다. 푸른 수채화로 장식된 책표지에서 내용으로 이어지는 신선함이 새로 우리의 가족이 된 새내기들과 꼭 닮았고, 주인공 경주의 고민을 새내기들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바로 그런 고민이 시작될 때에 이 시집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태까지 알았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개인적인 생활에서 함께하는 생활, 그리고 참된 삶을 깨닫는 데에 작은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올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이 싯귀 하나하나가 기억될 것이다.

한 규 희
〈사범·한교3〉

우리 친구가 됩시다

길었던 겨울이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교정 가득 봄의 향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겨울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봄을 느끼고 계십니까?

겨우내 꽁꽁 묶어두었던 답답한 가슴을 원고지 위에 풀어놓지 않으십니까? 글을 통해서 외대 학우들 모두 친구가 됩시다.

지난 겨울에 만든 여러가지 의미있는 추억들, 개강 후 캠퍼스에서 맞보는 새로운 느낌들, 외대 학우들과 꼭 같이 하고 싶은 이야기등 여러분의 진실이 담긴 글을 가지고 외대학보 학생기자실로 달려오십시오. 반갑게 맞아드리겠습니다.

시, 수필·일기·서간문(각9매), 서평·영화평·공연평·꽁트(각12매), 단편소설(40매 내외)등 여러분의 참글을 기다립니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도 드립니다.

문화부

파수대

조국이 부르고 있다

—지난 2월 22일(토) 한양대에서 열린 교육재정확보와 남북합의서 이행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중

〈강인숙 본보편집장〉

문화 응달샘

친구여 찬 비 내리는 초겨울 새벽은 슬프다
—채광석 지음

대학생인 작가가 노동자·농민등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그들의 삶의 애환을 담담하고 위트있게 표현한 시집이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그늘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물과 분노를 그들의 입장에서 친근한 어조로 이야기 해주고 있다.

〈연구사펴냄 값3천원〉

이제는 지는 꽃도 눈부셔라
—이영실 지음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있어 남녀간의 사랑문제는 누구에게나 한번 쯤 큰 고민거리가 되어왔적하다.

변혁의 길에 함께 선 두 남녀가 끝없는 갈등과 힘겨운 상황을 극복하면서 꽃피우는 순결한 사랑은 그러한 의문에 조금이나마 해답을 전해줄 것이다. 이 소설은 쉽게 만났다 헤어지는 오늘의 사랑에 익숙해진 젊은이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줄 것이다.

〈푸른숲펴냄 값5천8백원〉

저 별을 버리지 말아야지
—정세훈 지음

돈없는/노동자의 아픔을/아버지의 아픔을/그리고 내 자신의 아픔을/숨김없이 이야기하다보니/그것이 시가 되었어

(「꿈 이야기」중에서)

노동자인 작가가 생활현장에서 직접 느꼈은 힘겨운 현실과 그 속에서 꽃피는 따뜻한 인간애를 절제된 언어로 형상화한 시집이다. 소외된 노동의 참가치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다.

〈하늘땅펴냄 값3천원〉

민들레처럼
—박노해석방대책위원회 지음

「민들레처럼, 민들레처럼 그렇게 저는 다시 설 것입니다」 얼마전 구속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북역중인 시인이자 노동운동가인 박노해의 고뇌와 희망, 삶과 투쟁의 기록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그가 그동안 발표했던 글 및 미발표 글, 재판장에서의 모두진술, 옥중에세지, 그리고 혁명가로서의 성장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모진 고문과 0.7평의 차가운 감옥속에서도 변치않는 그의 굳센 결의를 느낄 수 있다.

〈노동자의벗펴냄 값4천8백원〉

우리들의 절반 북한 백문백답
—강정구·정대화의 지음

북한은 더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되어야 하는 우리들의 절반, 우리의 조국이다.

이 책에서는 북한의 지형및 자연경관에서부터 정치·경제·군사·문화·통일정책에 이르기까지 쉽고 간결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가져왔던 편협되고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 북한을 좀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

〈사계절펴냄 값3천8백원〉

해방맞이 판굿 「우리덜 시상」
—극단 「현장」의 주최

판굿 「우리덜 시상」이 3월1일(일)부터 9일(월)까지 혜화동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가오는 14대총선을 맞이하면서 선거를 앞둔 세상표정,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만들기, 지난 13대총선이후 겪은 여러 사건들,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진정한 우리들 세상의 모습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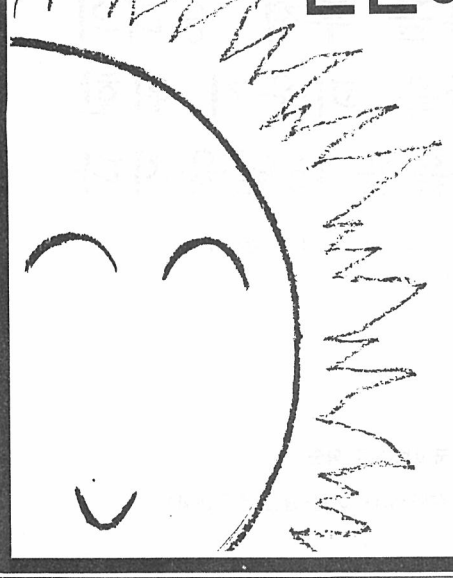
극단 「현장」을 비롯, 민요연구회와 풍물굿패 「살판」이 합동으로 공연하는 이 판굿은 노래와 춤, 흥겨운 풍물장단이 한데 어우러지는 신나는 한마당이 될 것이다.

▲입장료:5천원(예매 3천원)

▲연락및 문의처:예술극장 한마당(743—1266)

민족 자주 언론 외대학보사 제47기 수습모집광고

단단히 준비되었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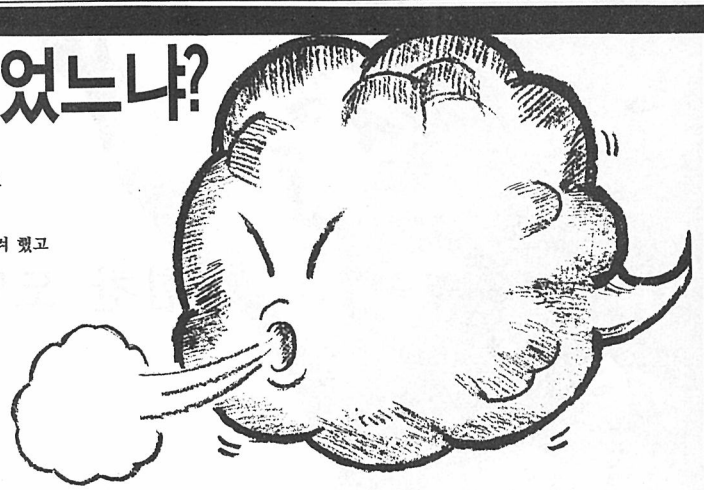


태양과 구름이 한 나그네를 상대로
힘자랑 내기를 하였다.
구름은 거센 바람을 일으켜
억지로 나그네의 외투를 날려버리려 했고
태양은 반짝 더운 기운으로
나그네에게 계절을 속였다.

너는 이제 막 길을 나선다.
시련과 유혹도 뒤따라 나선다.
한치도, 한 순간도 시련과 유혹의
힘겨루기에
이용될 수 있겠는가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자주로써
길을 나아가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단단히 준비되었느냐
이 물음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너를
우리는 필요로 한다.



외 대 학 보